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경 훈

2009년 8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경 훈

2009년 8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윤 치 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경 훈

2009년 5월

고경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6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제한점	2
3. 선행 연구 고찰	3
II. 전기문의 교육적 함의	8
1. 전기문의 특징	8
2. 전기문 교육의 중요성	10
3. 여성 전기문의 교육적 의의	12
III.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18
1. 교육과정별 전기문 인물 분석	21
2. 교육과정별 여성 전기문 비교·분석	30
IV. 새로운 여성전기문 구상	61
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 기준	61
2. 여성 전기문 내용 수록 방향	78
3. 여성 전기문의 재조명	82
V. 요약 및 결론	93
참고문헌	95
ABSTRACT	100

표 목 차

<표 III-1> 교육과정별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 일람표	18
<표 III-2> 교수요목기 여성 전기문 단원	22
<표 III-3> 제1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3
<표 III-4> 제2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4
<표 III-5> 제3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5
<표 III-6> 제4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7
<표 III-7> 제5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8
<표 III-8> 제6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28
<표 III-9> 제7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30
<표 III-10> ‘헬렌 켈러’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31
<표 III-11> ‘헬렌 켈러’ 전기문 비교	31
<표 III-12> ‘퀴리 부인’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35
<표 III-13> ‘퀴리 부인’ 전기문 비교	35
<표 III-14> ‘신사임당’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38
<표 III-15> ‘신사임당’ 전기문 비교	38
<표 III-16>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41
<표 III-17>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비교	42
<표 III-18> ‘나이팅게일’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44
<표 III-19> ‘나이팅게일’ 전기문 비교	44
<표 III-20> ‘유관순’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48
<표 III-21> ‘유관순’ 전기문 비교	49
<표 III-22>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53
<표 III-23>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 비교	53
<표 IV-1> 1학년 성취 기준	61
<표 IV-2> 2학년 성취 기준	62

<표 IV-3> 3학년 성취 기준	63
<표 IV-4> 4학년 성취 기준	63
<표 IV-5> 5학년 성취 기준	64
<표 IV-6> 6학년 성취 기준	65
<표 IV-7> 여성 전기문 적용 가능한 학년별 성취 기준	66



국문 초록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연구

고 경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윤 치 부

남성과 여성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쪽도 무시될 수 없으나 역사 이래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제도 아래서 여성은 대개의 경우 소극적 입장에 놓여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여성들도 희생과 복종이라는 남존 여비의 덕목을 따라 살아감을 강요받았고, 결혼마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집안이 맺어주는 대로 따라야 했다. 시간이 흘러 교육이 보편화 되고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졌다. 최근에 법조계, 행정계, 정치계, 경찰계, 군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힘이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는 등 각계각층에서 여성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재로

서의 교과서에서 여성 전기문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교육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대부분 남성 인물을 말한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남성 인물 못지않게 뛰어난 여성 인물도 많지만, 교과서에 실린 인물 중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 때문이다. 각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 전기문의 수가 적고, 전기문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에서도 한국 여성 인물이 외국 여성 인물보다 그 수가 적고 다루는 분야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한다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입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요목기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별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을 분석하고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을 살펴보면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인물을 분석하였고,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을 분석·비교하였으며 앞으로 구현될 교육과정에 의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여성 전기문의 수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기문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과 경향을 알아보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여성 전기문을 비교·분석하는 문헌 연구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를 거쳐 오면서 부분적인 변천은 있었으나 대폭적으로 변천된 부분은 없었다.

둘째, 전기문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동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대다수가 업적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유관순' 한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전기문에 수록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여성 전기문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의 발굴이 절실하다.

따라서, 여성 전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첫째, 인물 선정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문장 기술면에서 생생한 움직임과 분명한 가치와 호소력, 흥미를 끝만한 낱말로 쓰되, 지나친 과장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학생의 입장에서 씌어져야 한다.

넷째, 남녀 불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전기문일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권위가 상승하고 남녀평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과학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정치·경제 분야 등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여성 인물에 관한 전기문을 국어 교과서에 수록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여성 권익, 국어과 교육과정, 인물 선정, 여성 전기문,
여성 전기문 수록 방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유교적 가르침을 받아 남존 여비의 덕목을 따랐으며 결혼마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집안이 맺어주는 대로 따라야 했다. 한마디로,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대보다는 남성들이 쳐 놓은 울타리 안에서 희생과 복종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감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나타난 신여성들은 봉건적 가족제도를 거부하고 자유연애를 선호하면서 남성들이 세워 놓은 틀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하지만, 신여성들의 힘만으로 남성의 봉건적인 틀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9년 부계 8촌, 모계 4촌이었던 친족 범위가 양쪽 모두 8촌으로 같아지고, 이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청구권이 생겼고,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 없이 재산을 이루는데 노력한 공로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들·딸, 기혼·미혼 따질 것 없이 재산상속도 평등하다는 내용 등의 3차 가족법이 개정되었고, 1990년대에 여성학이 대학 교육의 주를 이루었으며 1999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법이 탄생하였다. 차츰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여성들의 어깨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호주제와 종중자격제한의 폐지로 이어지면서 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점차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여성의 위치가 옛날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전효숙,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행정계에서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 4명의 여성 장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한명숙, 경찰계에서는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 김인옥, 군계에서는 최초의 여성장군 양승숙, 교육계에서는 최초의 여성 경제학 박사인 김애실, 정치계에서는 첫 여성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등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힘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의 약 13%인

39명이 여성 의원이고, 최근 여성이 판사임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은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 시대변화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지만, 교육에 있어서 기초·기본 자료가 되는 교과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대부분 남성 인물을 말한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남성 인물 못지않게 뛰어난 여성 인물도 많지만, 교과서에 실린 인물 중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어과는 도구교과로서 다른 교과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은 도덕과나 사회과의 역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국적, 성, 시대, 직업 등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인물 선정이 되어야 한다.

각 교육과정기별로 여성 전기문이 적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외국 여성 인물이 한국 여성인물보다 많이 실리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여성의 권익은 신장되었지만, 교과서에 실린 대한민국 여성은 제자리걸음이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쪽도 무시될 수 없으나 역사 이래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제도 아래서 여성은 대개의 경우 소극적 입장에 놓여 있었다. 오늘날 문화의 발달과 교육의 폭넓은 개방으로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의 여성의 눈부신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재로서의 교과서에서는 여성 전기문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수요목기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별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을 분석하고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을 살펴보면서 변천 양상을 분석·비교하여 보고 앞으로 국어 교과서에 실릴 여성 전기문의 수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기문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

된 전기문의 내용과 경향을 알아보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여성 전기문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로 한다. 즉, 교육과정별로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여성 전기문을 살펴보면서 변천 양상을 분석·비교하고, 앞으로 구현될 교육과정에 의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여성 전기문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수행할 연구의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한점을 밝히고, 전기문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여 논문의 좌표를 확인한다.

제Ⅱ장에서는 전기문의 장르적 특성을 알아보고, 전기문 교육의 중요성과 여성 전기문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인물을 분석하고, 여성 전기문의 내용을 분석·비교하여 교육과정별 변천 양상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여성 인물의 선정과 여성 전기문의 교과서 수록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Ⅴ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연구범위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으로 한정하였다. 각 교육과정별로 각 학년별, 학기별로 하나의 교과서를 택하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수정·보완되어진다는 교과서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약 7~8년을 주기로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변천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제한 점을 둔다.

3. 선행 연구 고찰

교육과정이 거듭될수록 문학영역 중에서도 시나 동화 분야는 대폭 개선되고 있으나 전기문 분야는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다. 다음은 본 연구와 비교적 관련

이 많은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1974년 고순은 “어린이용 한국 위인전에 관한 연구”에서 너무 이상화된 인간상이나 인간상을 이미 생래적인 것, 또는 청소년에 이미 고정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싹트게 하고 인간이 긴 생애를 통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발달하는 존재임을 인식시키지 못하므로 위인의 참모습을 이해시키거나 자아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¹⁾

1979년 강태신은 “전기문의 지도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대 위인 전기문 읽기 자료 개발 제시와 이를 토대로 전기문 교수·학습 과정을 구안 정립하여 지도하면 단위 문장 중심을 통하여 독해 기능을 신장시킴은 물론 가치관 형성에 매우 효과적임을 밝혔다.²⁾

1979년 이효선은 “아동도서 출판의 문제점”에서 세계명작, 세계위인전의 치중을 지양하고 우리 위인전, 우리 창작 도서 등 각 분야의 책을 출판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

1980년 임채규는 “전기문의 독서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학생 수준에 맞는 전기문을 추출하여 읽기 도서를 선정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을 고안하여 지도한 결과 독해 기능뿐 아니라 생활태도 면이 바르게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⁴⁾

1982년 류준형은 “전기문의 본질에서 본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에서 전기문의 본질을 사실성과 감동성의 양면적 구조로 파악하여 국어 교과서에 있는 전기문을 연구한바, 사실적인 것이 두드러지게 왜곡되어 성스럽고 신령스러우며 초인간적인 업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등 진실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전기문의 본질은 사실의 진실성과 허구의 감동성이 서로 잘 조화되어야 전기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교재의 선정 기준을 밝혔다.⁵⁾

1) 高舜, “어린이용 韓國 偉人傳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2) 강태신, “傳記文의 指導가 價値觀 形成에 미치는 영향”, 서울特別市教育研究院, 《教育研究論文集. 2》, pp.224-249, 1980.

3) 이효선, “아동도서출판 의 문제점, 세계 명작, 위인전 치중 지양하고 각 분야의 책 출판해야, 어린이 의 독서환경 <特輯>”,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55》, pp. 20-21, 1979.

4) 임채규, “전기문 의 독서 가 가치관 形成 에 미치는 영향, 독서지도 <特輯>”, 부산시 교육위원회, 《부산교육 211》, pp. 90-96, 1980.

5) 류준형, “전기문의 본질에서 본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부산교육학회, 《어문학교육 5》, pp.81-94, 1982.

1986년 정상규는 “전기문의 속살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속에 실려 있는 위인들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대상 인물의 모습을 국적별, 성별, 시대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인물 중심에서 외국 인물을 늘려 가는 양상을 보이고, 시대적으로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장군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제일주의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⁶⁾

1989년 김인전은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분석함으로써 선택되는 위인은 어떤 사람이며, 배제되어 있는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내어 국가 지배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입, 은폐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⁷⁾

1989년 김기홍은 “극화학습을 통한 전기문의 지도방안”에서 설교나 단순한 가치 주입식의 전기문 학습 방법보다는 구조가 압축되지 못한 전기문을 극화함으로써 아동들에게 현장성이 강한 극적인 체험을 갖게 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는 데 효과가 크다고 했다.⁸⁾

1992년 노태조는 “국문전기연구”를 통해 전기문은 역사로써 다루기도 하고 서사문학의 장르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⁹⁾

1993년 한진일은 “애국계몽기 역사전기문학 연구”에서 애국계몽기의 역사전기문학을 양식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양식문제에 대한 이론적 심화와 더불어 토론채 문학 등 역사전기문학과 동시에 존재했던 문학 양식들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하고 있다.¹⁰⁾

1994년 정근영은 “초등 국어 전기문 연구”에서 초등국어 전기문을 개화기 시대와 광복 후 교육과정기 시대로 나누어 그 인물의 변천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인물을 다룬 전기문의 주제는 애국심 고취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서양 인물을 다룬 전기문의 주제는 과학탐구, 인도주의 실천, 고난극복, 탐험과 개척

6)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7) 김인전,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 전기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 김기홍, “극화학습을 통한 전기문의 지도방안”, 부산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회, 《국어과교육 9》, pp.7-19, 1989.

9) 노태조, “國文傳記研究”, 중앙문화사, 1992.

10) 한진일, “애국계몽기 역사전기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등으로 다양함을 밝혔다.¹¹⁾

1995년 남상구는 “국민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선정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5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국어과 교재와 기타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전기문의 인물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선정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매우 다양한 아동들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환경의 위인들을 접하였을 때 동일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전기문에 수록할 때 아동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¹²⁾

1997년 주종진은 “초등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 변천 연구”에서 개화기부터 교수 요목기를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6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변천 모습을 살펴보고 구현 양상과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¹³⁾

2000년 김미애는 “초등학교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에서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 전기문 단원에 수록된 내용과 인물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행 전기문에 수록된 인물들이 역대 교과서에 몇 차례나 등장했는지를 분석하여 전기문 인물의 시대변화와 인물선정의 변화를 비교·논의하였으며 기존의 초등학교 전기문 지도 과정 및 방법을 검토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극화학습을 통한 전기문의 지도 모형과 방법을 구안하여 지도의 실재를 제시하였다.¹⁴⁾

2004년 이순명은 “전기문의 서술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역사 이해”에서 거북선에 대한 이해, 이순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이순신과 원균의 비교, 이순신 전기에 대한 이해 양상으로 나누어 초등학생의 전기문 이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기문이 학생의 역사이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자인 학생들은 각기 다른 서술적 특색이 존재하는 전기문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밝혔다. 그리고 전기문 서술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11) 정근영, “초등 국어 전기문 연구 : 사적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2) 남상구, “국민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선정의 타당성 분석”,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3) 주종진, “초등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 변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4) 김미애, “초등학교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기문의 서술적 특성과 역사이해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 여러 전기문의 내용 중에서 각각 서술상의 특색이 존재하는 역사적 사건, 상황, 인물의 일화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반응을 분석하여 그러한 이해 양상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역사학습에 전기문이 시사하는 바를 제안하였다.¹⁵⁾

2005년 이영애는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에서 읽기 지도와 읽기 제재의 관계를 살펴보고, 읽기 제재로서의 전기문의 특성을 밝히고, 6차교육과정기까지 국어과에 수록된 전기문의 인물 선정의 경향과 제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과 관련된 서적이거나 논문, 고증자료 검증을 통하여 연구한 전기문 지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물 유적지 답사나 고증자료를 통해 알아낸 인물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하였다.¹⁶⁾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주로 전기문 지도와 가치관 형성의 관계, 교육과정별 전기문에 등장하는 위인의 소속집단, 시대, 국적, 가치관에 따른 분류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15) 이순명, “전기문의 서술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역사 이해”,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6) 이영애,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Ⅱ. 전기문의 교육적 합의

1. 전기문의 특징

전기문(傳記文)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 인물의 언행, 업적 등을 중심으로 생애나 그 일부를 사실대로 쓴 글이다. 전기문은 실제의 훌륭한 인물에 대한 행적이 기록된 글이므로 학생들에게 흥미가 높은 교재이다.

전기문은 시·공간성, 사실성, 교훈성, 문학성, 역사성, 현재성을 띤다. 한 인물의 일생과 활동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시·공간성을 지니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 사건, 장소 등을 다루고 인물의 언행과 업적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성을 지닌다. 그리고, 인물의 성품이나 도덕성을 강조하여 독자에게 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교훈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감동성을 지니며 동일한 인물이라도 지나치게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발휘하여 인물의 심리상태, 인간관계, 인물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 등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물, 사건, 배경 등 문학작품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며 서술, 묘사, 대화 등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학성도 지닌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기술되면 역사성을 지니고, 과거의 일을 다루지만 생동감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현재 시제를 주로 쓰게 되면 현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공간성에는 출생과 사망, 성장 및 교육과정, 인물의 활동 공간, 배경이 해당되고, 사실성에는 업적 및 사회활동의 진실성이 해당되며, 감동성에는 인류에 끼친 영향 및 본받을 점, 교훈,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문학성에는 인물이 심리상태, 인간관계, 인물에 대한 느낌 등이 해당된다.

알렌 네빈스(Allan Nevins)는 전기 작품의 3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첫째, 실감을 줄 수 있도록 중심인물을 재현시켜야 한다. 둘째,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셋째,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의의를 줄 뿐 아니라 독자의 폐부를 찌를 만한 방법으로 중심인물과 그 이야기를 묘사해야 한다.¹⁷⁾ 즉, 전기문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 기술하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감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인물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여 초인성을 강조하던지 자료가 미흡하여 작가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거나 신빙성이 낮은 자료를 인용하여 학생이나 지도하는 교사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학습효과 및 학습목표 달성이 반감된다. 사실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지루하고 딱딱한 역사책이 되어 버리고, 상상력만 강조하게 되면 소설이 되어 버리고 만다. 전기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대부분 역사상 본받을 만한 인물로서 시대적 배경, 언행, 업적 등이 사실대로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먼저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인물을 너무 이상화시켜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로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이질감을 가지게 하고 좌절감을 맞보게 한다. 류준형은 “전기문의 본질에서 본 국어교과서의 전기문”에서 학생들이 전기문의 인물에게서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면 자극을 받아 그 인간상에 접근을 시도하지만, 자기와 현격한 격리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자아 개념을 심어 주게 되므로 가능성 추구(동일화)에서 좌절을 갖게 하는 역효과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였다.

전기문은 단순한 역사 소설과는 달리 작가의 상상 표현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전기문 속 인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룰 경우에도 그것은 실제했던 일화 등에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전기문으로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¹⁷⁾ 대상 인물의 삶의 모습이 작가의 의도된 집필관점에 따라 꾸며지고 그것이 독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인물의 언행, 업적, 심리상태, 배경 등을 작가의 풍부한 표현력으로 풀어간다면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문의 내용은 대부분 출생, 성장과정, 교육과정, 사회활동, 업적, 인물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출생일과 사망일, 나이, 고향이나 국적, 성격, 학력, 재능 등 인물의 개인 정보, 성격 형성과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는 인물의 성장과정, 사회봉사 활동과 업적 등과 같은 인물의 한 일, 인물의 가정 환경 및 활동 공간, 사회적 상황 등 시간·공간적 배경, 인물의 인생관, 인류에 끼친 영향 및 본받을 점, 교훈 등과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전기문의 내용에 포함된다.

17) 프란시스·브라운 편, 김수영 외 공역, 20세기 문학평론, 서울 : 중앙문화사, p. 286, 1961.

18) 류준형, “전기문의 본질에서 본 국어교과서의 전기문”, 《어문학 교육》 제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pp.87-88. 1982.

전기문의 구성방법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 즉 일생을 다루는 일대기적 구성과 일생 중에 한 부분이나 몇 가지 부분, 즉 중요한 시절만을 다루는 집중적 구성이 있다. 일대기적 구성은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된 일반적인 짜임이다. 집중적 구성은 인물의 훌륭한 행동에 관한 일화만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한 일화중심적인 짜임이다.

전기문을 이루는 요소를 살펴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다루는 사실적 요소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상상적 요소 그리고 인물에 대해 작가가 평가하는 비평적 요소 세 가지로 나뉜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휘된 상상력은 생동감과 감동을 더해 준다. 집필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실적 요소를 왜곡하는 비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기문의 집필 관점은 인물의 업적이 글의 주 내용인 업적지향적이냐, 인물의 말과 행동이 중심이 되는 언행지향적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업적지향적 관점은 작가가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으로 외면지향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언행지향적 관점은 작가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으로 내면지향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기문의 형식에는 어떤 인물의 일생, 업적 언행 등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전기와 자기 생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자신이 직접 기록한 자서전, 자신의 생애에서 사회적으로 특히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회고하여 직접 기록한 회고록, 어떤 인물의 업적이나 활동 등을 작가의 해석·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평전, 여러 사람의 전기를 간단히 기록하여 모은 글, 즉 옛날 역사책에서 왕 이외의 역사적으로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업적이나 일화를 적은 열전,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 평생의 일을 기록한 글로, 주로 고인을 추모하려는 의도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찬미적인 성격을 띠는 행장(行狀)이 있다.

2. 전기문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데 있다. 국어과 교육도 이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

이라면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 전기문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인간상은 국가, 사회,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나라 그 시대에 가장 정선된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재가 바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이다. 이는 전기문 교육이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인간 교육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문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전기문 교육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문은 학생들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을 보여준다. 전기문은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인생 경험을 제공해 주어 인생을 이해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부모와 같은 가족들의 행동을 본보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사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자란다. 그러다가 국어 교과서를 통하여 전기문의 대상인물을 만나면 그들은 전기문의 대상인물을 동일시 대상의 인물로 삼아 본받으려 노력한다.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동일시는 중요한 뜻을 갖는다. 교육학 용어 중에 ‘성장모델’, 혹은 ‘동일시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라면서 껴안고 부비고 부딪혀가면서 그것과 동화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 ‘성장모델’은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 속의 위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부모님이 되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성장모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바로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同一視(identification)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행위들과 같은 성향의 특징이나 지위, 소속, 집단의 특징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상황의 특징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학습과정이다. 1894년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방어기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동일시는 정신분석에서도 다른 사람의 동기나 심리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좌절된 동기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심리의 좌절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어기제의 하나로 중요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를 동일화 또는 고정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실현할 수 없는 적응을 타인이나 어떤 집단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그 타인이나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이다. Bandura는 사

회학습이론에서 관찰학습의 종류 중에 하나로 동일시 전형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 모방함으로써 여러 행동이 학습 된다고 하였다.

교육사회학에서는 사회화(Socialization) 방법으로 동일시(모형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도 1990년대 초반 최고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노력과 열망이 커지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벤치마킹이란, 조직의 향상을 위해 최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된 조직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작업 과정을 검토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순한 복사수준이 아니라 재창조의 선행과정으로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전기문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그 시대의 배경이나 환경 등이 글 속에 녹아 있다. 역사적 사실의 나열식 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든다. 그리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전기문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에 그 시대의 배경, 환경, 사상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역사를 알게 된다. 이처럼 전기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전기문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 준다.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국적, 직업, 성별, 학력, 재능, 한 일, 활동 시·공간, 가정·사회적 환경 등이 다양하다. 학생들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기문의 여러 인물을 만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세상 형편에 밝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문은 본보기 인물의 행적과 업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3. 여성 전기문의 교육적 의의

모든 교육이나 활동은 그 최종 도달 목표를 '전인적 인간 육성'에다 두고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교과 가운데 특히 국어과 교육은 그 궁극적 목표를 知, 情, 意가 조화된 원만한 인격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 육성'에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국어과 교육은 단순한 언어기능만을 다루는 지식위주의 교과목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감정 등 고도의 정신적 계발은 물론 국민성, 민족성, 인간성의 정의면까지도 형성시키는 특수 교과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성 계발과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오늘의 교육사조면이나 시대적, 사회적, 국가적, 요구면으로 보아서도 인간형성이란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 형성이 중요한 목표가 되는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 전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수 있다. 인간형성적인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전기문이다. 이것은 그대로 그 인물됨을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이다. 전기문은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유발, 자극시킴으로써 자아의식의 맹아기에 지표적 역할을 해 주기도 한다. 인간으로서 공통적인 약점과 한계를 극복한 위인의 농도 짙은 생애와 고귀한 삶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상을 높여주고, 인간생애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형성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어과 교재 중 전기문이다.

Wolman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에 의해서 구분되는 행동패턴을 성역할이라고 하였다. 생물학적 근거에 의한 성역할의 구분은 임신, 월경 등을 말하고, 사회심리학적 성역할의 구분은 여성은 복종적이고 순종적이며 남성은 거칠고 지배적인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성역할이 선천적인 것에 반해 사회심리학적 성역할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성역할을 규정짓는 데에는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가정이나 학교 교육, 언론매체, 도서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교육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학교교육을 통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생들은 성역할을 체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성별 불평등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심각하며 다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남녀 평등을 더 많이 부르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교육적,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 전기문의 교육적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전기문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 수 있다.

T. Parsons는 남편의 역할을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이라 하고 처의 역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이라고 하였다. 남성은 가족의 균형유지나 대외관계를 바람직하게 수립하는 역할이며, 여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의하면, 역할에는 역할 담당자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역할수행(role performance)과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대되고 평가되는 역할기대(role expectation)가 있으며, 역할 담당자가 스스로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지각하는 역할인지(role recognition)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 남편과 부인은 각기 다른 역할 인지와 역할 기대를 가지며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부양 역할은 남편의 역할로 지각하고 가사와 자녀의 양육은 부인의 역할로 지각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 후 여성의 역할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사를 전담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가부장제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성 자신의 역할인지와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역할기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물론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역할수행과 역할기대, 역할인지 변화가 일어나고, 상호균형 상태가 깨어져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그 갈등의 정도가 약하거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다. 더욱이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정 밖에서의 활동 혹은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소홀해지면 그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흔히 책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여성은 감성적이고 양육적이며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인물로 생각되고, 남성은 이성적이고 경쟁적이며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학생들이 읽는 동화나 만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녀 간의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왕, 군인, 애국지사, 농부, 학자, 기술자, 탐험가 등 다양한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여자는 공주, 예술가, 교육자 등 훨씬 한정된 인물로 나온다. 또한 주인공을 통해 제시되는 성격 특성이나 글의 주제를 보더라도 남자는 요기, 정의, 애국, 고난 극복이, 여자는 효, 사랑, 권선징악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역할이란 이처럼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기대하는 인성이나 특성,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성역할의 발달에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다. 여성의 성격, 남성의 성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며, 여자의 직업, 남자의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탐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며 남녀의 바람직한 역할 모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봄으로써 남녀의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성 전기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와 문화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국어과 교육에서 여성 전기문 교육이라 하겠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인물을 접해보게 한다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여성 전기문은 남성성 위주의 인간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남성성과 여성성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남성의 특성이란 자기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며, 용감하고, 자립적인 성격·행동으로 간주되어 남자란 가장으로서 가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가계유지의 책임을 지는 가정의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반면 여성의 특성이란 감성적이고, 수줍고, 수동적이고, 암전하고 봉사와 헌신적이며, 약한 존재로서 의존적인 성격과 행동들을 나타내는 한편, 여자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여인의 모습이 전통적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삶에 대한 사고와 태도가 변화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남녀 간의 성에 의한 역할 구분은 현대사회에 들어와 달라져 왔다. 더 이상 남자는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도적인 입장일 수만은 없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들이 벌어드주는 수입에 의지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남성, 여성 각각에게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공존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어떤 상황에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인간 즉, 양성성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여성 전기문 교육이다. 남성 위인에 편중된 전기문 교육은 학생들에게 남성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올바른 정체체성이나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없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부당하게 고정화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진로 발달을 방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인력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전기문 교육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키워주어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고 여성의 다양한 분야로 사회 진출을 도모하며 21세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셋째, 여성 전기문은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덴 킨들러 박사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동특성 연구’에서 성역할모델로 ‘알과걸’을 제시하였다. ‘알과걸’은 타고난 여성성과 훈련된 남성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합성체이다.

학생들에게 남성 전기문만을 접하게 한다면 ‘알과걸’과 같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남학생은 남성적인 진취적 성향을 바탕으로 여성의 강점인 감성과 돌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이어서 학생들의 여성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처럼 남성 위주의 전기문을 접하게 되면 여학생의 남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남성 위주의 전기문에서 벗어나 여성 전기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학생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정신건강이 향상되며 타인보다 본인 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독립 및 관계지향성향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며, 그들은 각각 제나름대로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 아래서 여성은 대개

의 경우 소외되고 소극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학교교육이 사회내의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심미옥은 교육 내용에 남녀 집단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횟수가 많으며 삽화에 있어서도 남자가 더 많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성 위주의 전기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여성 전기문 교육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변천 양상

전기문의 등장인물이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공감을 주는 보편적 공통성과 한 나라가 가지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충족할 만한 개성적인 면을 아울러 지니는 인물이다. 전기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하나같이 남달리 뛰어났고 모든 면에서 남의 본보기가 되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인간적 갈등도 별로 겪지 않고 마치 예정된 인생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실패 없이 그리고 매우 훌륭하게 그것을 성취해 낸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평범한 아동들에게 위인의 일생은 자기들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은연중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서는 하나 같이 위대하고 모범적인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교육과정별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 일람표

인물	교육과정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강감찬			4-1	4-1	5-2			3-1
간디							6-2	
공자	6-2	6-2						
구진천	5-1							
김만중								4-1
김시습						6-2		
김정호	5-1	5-1	5-1	5-1	5-2	5-2	5-1	5-1
김홍원	3-2	3-2						
관창		5-1	5-2					
권율	6-2							
나이팅게일	5-1	5-2	5-2	5-2	5-2			
나폴레옹								6-1
남궁억							6-1	
노벨		6-1	6-1					5-1

19)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4, 1985.

<표 III-1> 계속

교육과정 인물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노오드클리퍼			6-2	6-2				
단군								6-2
달가스		6-1		6-1				
뒤낭		5-2	5-2					
라이트 형제								2-2
라에네크		5-1						
리빙스톤		5-2	5-2					
링컨	4-1	3-2	3-2					
마리오	5-1							
무훈	4-2							
문익점		4-1	4-1	4-1				
밀레		5-1	5-2	5-2				
박문수						4-2	4-2	
박제상								5-1
박혁거세	2-2							
방정환		4-1 4-2						
백결							6-2	
백장	6-1							
베토벤	5-1	5-2	5-1			5-2		
벨		5-1						
불넬		5-2						
빼델	6-2							
사명당			5-1	5-2				
서경덕	4-2						2-2	2-2
석가모니	6-1	6-2						
석주명							3-2	3-2
세종대왕	4-1 6-1		4-2	4-2	6-1		6-1	
소크라테스		6-2						
솔거	3-1							
쇼팡		5-2						
슈베르트		6-1						
슈바이처		5-2	5-2			6-1	4-2	4-1
스탠리			5-2	5-2				
신사임당			6-1	6-1	5-2	5-1		
쑨원					6-2			
아르키메데스	6-1							
아문젠		5-2						

<표 III-1> 계속

인물 \ 교육과정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안텔센		4-1						
안중근			5-2	5-2	5-2	5-2	5-1	
안향			3-2	3-2				
온달과 평강공주				3-2	3-2	3-2		
오성과 한음							4-1	3-2
유관순		3-2	3-2	3-1	4-1	4-1	4-1	4-1
유리태자	4-1							
윤봉길				5-1	5-1	4-1		
윤희	3-1	3-2						
에디슨	5-1		4-2	4-2	4-2	4-2	4-1	
예수		6-2						
이덕형					3-1	4-1		
이면			4-2	4-2				
이상재							4-2	
이순신	3-2, 4-1, 5-2	3-1 3-2	3-2	3-1 3-2 6-2	6-2	6-1		6-1
이운재	6-2							
이항복			3-2		3-1	4-1		6-1
이황	6-2					2-2	2-2	
정약용								4-1
조온				5-1	5-1			
조식						6-1		5-2
주몽						6-2		
주시경	5-1					5-1	5-2	
최무선			5-1	5-1	4-1		5-2	
최영	5-1	5-1						
콜롬버스	5-2	5-2	5-2	5-2				
퀴리부인	6-1		5-1	5-1				
타고르						6-2		
파브르		4-1		3-1	3-2	3-2	3-2	
포드	5-2							
페스탈로찌		6-1	6-1	6-1				
한석봉 어머니	5-1	4-2	4-1	4-1	4-2	4-2	4-2	5-2 4-2 4-1
황희	5-2				3-1	3-1	3-1	
헬렌 켈러 설리반		4-2			6-1			

1. 교육과정별 전기문 인물 분석

교육과정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먼저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가. 교수요목기(1945-1955)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1945년 8월부터 제1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1948년 8월까지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명칭은 일제 때 용어인 ‘교수요목(教授要目)’이란 이름을 가지고 공포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1946년 9월 군정정학부국에서 ‘교우요목’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수요목’은 우리 교육사상 최초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전통적인 교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에 정착된 국가주의적 성격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은 교육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교육이 전체주의적인 식민주의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인 자주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제의 잔재를 버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일이었다.

교수요목기에는 새로운 위인들이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렸다. 2학년엔 박혁거세를 시작으로 6학년엔 소년 빼델까지 36명의 위인이 실렸다. 위인들을 출신별로 나누어 보면 군인으로는 이순신, 최영, 권율 장군 세 사람이 있고, 화가는 솔거 한사람이다. 학자이거나 사상가로는 윤희, 김황원, 서경덕, 주시경, 한석봉, 구진천, 황희, 율곡, 큐리부인, 이운재, 이황, 공자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나 왕을 정치적 지도자로 보면 박혁거세, 링컨, 세종 대왕이 있다. 외국인은 다양한 모습인데 과학자로 토마스 에디슨이 있고, 음악가로 베토벤, 마리오 그리고, 탐험가 콜럼버스, 자동차왕 포오드, 과학자로 아르키메데스가 실렸다. 동양의 다른 나라 사람으로 석가모니와 공자가 실렸는데 공자는 개화기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위인이다. 우리 나라 위인으로는 학자나 장군 출신을 많이 다루며 다른 나라 위인은 정치가, 음악가, 탐험가, 간호사, 실업가, 과학자 등 여러 부분에서 고루 다루었다. 시대 별로 보면 삼국 시대의 박혁거세, 솔거가 있고, 다른 나라는 석가모니와 공자 이렇게 네 명이다. 교수요목기에 초등 국어에 실린 여

성 전기문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교수요목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학기	단원명	인물
5-1	제십삼과 한석봉	한석봉과 어머니
5-1	제십오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6-1	제이십과 큐리 부인	퀴리부인

나. 제1차 교육과정기(1956-1962)

제1차 교육과정은 전란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하여졌다. 문교부는 이 시기에 도의 교육을 진작코자 하였다. “참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교육이라면, 도의는 언제나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도의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자 하였다.²⁰⁾

이 시기의 교육은 6·25전쟁뒤 재건이 교육의 주축을 이루었다. 전쟁으로 부서진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교육은 반공교육, 교육의 질 향상, 도의교육의 진흥을 그 주요 과제로 하였다.²¹⁾ 이 시기는 <새 교육운동>의 정신을 반영하려고 시도하여 종래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을 그만두고 생활 경험 중심과 노작 중심 교육을 펴고자 애썼다.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소재를 중심으로 자료 단원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으며, <새 교육운동>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식견이 모자랐던 탓이다. 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언어 습관’, ‘언어 사용 기능’을 올바르게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생활경험을 통한 지도를 강조하였다.²²⁾ 이러한 교육 전반적인 배경과 국어 교육의 배경을 깔고 전기문이 가장 중요시 되었던 시기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단원 수는 총 190개 단원 중에서 전기문은 33단원이 실

20) 홍용선, 한국 교육과정 생성과정에 대한 재조명, 《한국의 교육과정》, 한국교원대학교, 1991.

21) 이병호, “국어과 교육 변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22) 부산직할시교원연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교원연수원, 1993.

렸다. 3학년에서 33단원 중 5단원, 4학년 38단원 중에서 10단원, 5학년 35단원 중에 14단원이 실렸고, 6학년은 4단원이 실렸다. 1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 단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3> 제1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학기	단원명	인물
3-2	13. 유관순	유관순
4-2	12. 헬렌켈러	헬렌켈러
5-2	11.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2)

5.16 군사 정변으로 군사 정부가 강력한 독재적 행정을 운영하고, 통제적 사회 운영 상황 속에서 출발하였다. 1961년 10월 ‘향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임시 조치 교육이 운영되면서 심의, 개정을 보았다. 1963년 2월 15일에 공포되어 운영되다가 1969년 9월 14일에 다시 부분 개정해서 운영되던 때로 ‘한글’과 ‘한자’의 갈등기였다. 그리고 경제 제일주의에 입각해서 가난을 추방하는 국민 생활과 잘살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전통문화의 발굴로 민적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경험주의 교육학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제 1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며 제 2차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체제도 1,2차가 동일하며 제 1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교과 운영상 학습 지도의 요소화와 학력의 구조화를 위해서 목표 서술형식을 네 가지로 다듬어서 표현하였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토 학교 운영으로 향토 문화 교육의 허용을 위해서 각 학교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민주적 융통성을 터놓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사회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계의 왕성한 발전으로 읽을거리와 참고 자료와 문헌의 공급이 왕성해지자,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학습 운영에서 참고 문헌의 활용과 학급 문고 운영이 활발하게 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에 모두 180개의 단원이 실렸는데 28개 단원이 전기문 단원이다. 3학년에서 36단원 중 2단원, 4학년에서 36단원 중 8단원, 5학년에서 35단원 중 14단원, 6학년은 33단원 중 4단원이 전기문으로 실렸다. 5학년에 와서는 전기문이 14개 단원으로 40%를 차지하여 대폭 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제2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학기	단원명	인물
3-2	훌륭한 사람들 15. 유 관순	유관순
4-1	전해 오는 이야기 15. 한 석봉	한석봉과 어머니
5-1	아름다운 생활 8. 퀴리 부인	퀴리 부인
5-2	적십자의 정신 10.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6-1	인류의 길잡이 12.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라.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유신 교육의 태풍이 불다가 궤도 수정을 하고 1960년대 말에 결정되었던 몇 가지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 시행되던 때로 국민 교육 현장의 내용을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육 과정에 ‘국민 윤리과’ 즉 ‘도덕과’를 신설하여 10개 덕목을 국민 생활의 행동에서 실행하여 사회의 민심과 행동을 조율하는 교육을 담당시켰다. 그리고 한글과 한문을 분리시켜 국한 혼용을 배제하고, 모든 교과목의 교재는 순 한글화하고, 별도로 한자·한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자·한문 교과를 중·고교에 하나의 교과로 신설 독립시켰다. 따라서 대학에 한문 교육과를 두어 한문과 교사를 양성하고, 고전 국역 요원을 양성 배출하도록 해서 이의 실시를 실행하였으며 모방교육 즉 선진국의 교육 따라가기에서 국적 있는 토착화된 고유 민족 문화 창달 교육에 힘썼다. 그래서 미주 일변도한 실용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서구의 본질주의 교육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통적 민족 교육도 되살려 이 삼자의 교육 가치를 조화 시켜 새로운 한국 창조를 지

향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었다. 교과서 개발에서 초등 교재가 정적 교재에서 동적 교재로 바뀌며 행주(行註)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기서 지식과 기능을 겸비하는 학문주의 교육 과정의 의미를 살려 내기 위하여 언어학적 주장에서의 국어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형학습과 언어 용법 학습의 도입으로 기능 언어 교육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또한 행동 영역별 학습을 상호 유기적 연관 관계를 지어 학습 시키는 통합적 학력관을 지향하는 교육을 도입해서 응용력, 실행력, 행동력을 추구하는 교재 개발과 이에 따르는 교과 운영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한글 전용 교육과 한자 · 한문 교육의 분리 강화 교육 추구로 가치관 교육의 구현과 고유문화 창달 교육을 뒷받침 했다.

제3차 교육과정기 국어과 교과서에는 모두 184개의 단원이 실렸는데 전기문은 27개의 단원이다. 3학년에서 37개 단원 중에 5단원, 4학년에서 38개 단원 중에서 9단원, 5학년에서 35단원 중에 9단원, 6학년에는 34개 단원 중에 4개 단원이 실려 있다. 그러니까 보통 10%내외의 전기문이 실리는 편이다. 교수 요목기부터 계속 실렸던 인물로는 음악가 베토벤, 미국 대통령 링컨, 탐험가인 리빙스톤을 비롯하여 두 차례 실렸던 뒤낭과 슈바이처가 빠졌다. 새로운 추가된 인물은 윤봉길 의사, 조은, 온달 장군이다. 이 같은 새로운 인물이 교과서에 실리는 이유는 국민 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제3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학기	단원명	인물
3-1	1. 새살림 (1) 삼월의 하늘	유관순
3-2	8. 겨울 밤의 이야기 (2) 온달 장군	온달과 평강공주
4-1	5. 전해 오는 이야기 (1) 한 석봉	한석봉과 어머니
5-1	4. 아름다운 생활 (2) 퀴리 부인	퀴리 부인
5-2	적십자의 정신 11.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6-1	빛을 남긴 사람들 (1)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마. 제4차 교육과정기(1982-1987)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1980년의 교육개혁 조치를 배경으로 하였다. 1·2학년은 통합 교과로 지도하게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배경에는 교육의 힘을 민주 국가의 건설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으며, 1980년 7·30 교육 개혁 조치를 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어 내용이 사회과나 도덕적인 내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어서 분명치 않았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어과 고유 영역을 설정하였다. 국어과 교과 목표를 비롯해서 학년 목표 및 내용 등을 명확히 밝혀 주었다.²³⁾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문학교육을 독립영역으로 설정하여 목표와 내용을 따로 보였다. 본문 제재는 감동이 오고 재미있는 글을 선고자 노력하였다. 문학 제재는 모두 142편이고 전기문 제재는 20편으로 문학 제재의 14% 밖에 안 되어 다른 때의 교과서에 견주어 적은 양이다. 그렇지만 동요 동시 78편, 동화 21편에 이어 세 번째 많은 분량이라 전기문의 무게가 역시 무거움을 알 수 있다. 142개 단원 중에 20개의 단원이 실려 있다. 2학년이 25개 단원 중에 2단원, 3학년이 23개 단원 중에 4개 단원, 4학년이 20개 단원 중에 4개 단원, 5학년이 25개 단원 중에 6단원, 6학년은 27개 단원 중에 4개 단원이다. 그 중에 여성 전기문은 3학년에 1개, 4학년에 2개, 5학년에 1개, 6학년에 1개 단원이 실려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여성 전기문은 <온달과 평강공주>, <설리반 선생과 헬렌켈러>와 같이 한편의 전기문에 대상인물이 복수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을 주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의존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표 III-6> 제4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 학기	단원명	인물
3-2	8. 훌륭한 사람들 (1) 온달과 평강 공주	온달과 평강 공주
4-1	1. 훌륭한 분들 (1) 유 관순	유관순
4-2	8. 훌륭한 사람들 (1) 한석봉	한석봉과 어머니
5-2	4. 훌륭한 사람들 (2) 신사임당	신사임당
6-1	2. 훌륭한 사람들 (2)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	헬렌 켈러

바. 제5차 교육과정기(1988-1992)

제5차 교육과정기는 1987년 6월 30일에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국제 경쟁력 제고의 교육, 기능 능력의 세련화, 생산력 제고 등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교육과정기로 문교부는 명칭을 교육부로 바꾸고 기구 개편을 했고,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해·표현, 언어, 문학 3대 구조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6대구조로 바뀌 생활 국어 학습의 비중을 높였다. 그리고 학년 목표 및 학년별 내용 설정을 6단계에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인 3단계로 바뀌 나선형적 성장의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2학년의 국어 교과서가 통합교과서 ‘바른생활’에서 분리 독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라는 단권체제에서 이른 전학년에 걸쳐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라는 3권 체제 교과서로 짜서 발전적으로 개편하였다.

전기문과 관계있는 내용 구조는 ‘문학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문예)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기른다.’로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전기문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7> 제5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 학기	단원명	인물
읽기 3-2	9. 훌륭한 사람 온달과 평강 공주	온달과 평강공주
읽기 4-1	1. 유관순	유관순
읽기 4-2	2. 한석봉과 어머니	한석봉과 어머니
읽기 5-1	13. 신사임당	신사임당

사. 제6차 교육과정기(1993-1998)

제6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교시 제87-9호로 개정하였다. 1996년에 3~4학년, 1997년에 5~6학년 교과서가 개편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5차 교육과정과 다름없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였다. 열린교육이 선풍적인 인기와 호응을 얻었고 인지 심리학이 교수학습과정의 장에 주요하게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한글 전용측과 국한 혼용측의 논쟁이 가열되어 ‘한글 전용 초등 국정 교과서 편찬 지시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번졌다. 1990년 10월에는 제 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1년 5월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5대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가 한국 교원대와 한국 교원개발원에 위탁되었다. 또한 1992년 9월 30일에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단원에서 살펴보면 4학년까지 군인에 대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면학 정신과 인류 사랑, 탐구 정신, 독립 정신으로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제6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 학기	단원명	차시목표	인물
읽기 4-1	1. 빛을 남긴 사람들 유관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유관순
읽기 4-2	12. 위인들의 삶 한석봉과 어머니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

아. 제7차 교육과정기(1999~2006)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교육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국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목적에 따라 단원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한 인물이 하나의 텍스트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묶어 짧은 예시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이 많다. 슈바이처와 한석봉, 이방원과 정몽주, 이항복과 한석봉, 문무왕과 김유신, 이봉창과 윤봉길은 백범일지 텍스트에 인용, 이이, 이항, 박지원, 정약용은 서너 줄의 텍스트로 함께 인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인용된 인물은 모두 31명이다. 이 중 텍스트로 소개된 인물은 30명이다. 읽기 책에 완전한 텍스트로 인정된 인물은 12명이며 말하기·듣기 자료에 4명이 실렸다. 학년별 인물 분포는 1학년 세종 대왕 1명, 2학년 라이트형제, 서경덕, 이순신 3명, 3학년 황희, 강감찬, 이순신, 석주명, 오성과 한음, 방정환 7명, 4학년 유관순, 링컨, 김만중, 슈바이처, 한석봉, 정약용 6명, 5학년 박제상, 김정호, 이방원, 정몽주, 노벨, 조식 6명, 6학년 문무왕, 김유신, 나폴레옹, 이항복, 한석봉, 이순신, 김구, 이봉창, 윤봉길, 단군, 이이, 이항, 박지원, 정약용 14명이다. 이 중 이순신 2, 3, 6학년 3번, 이항복은 3, 6학년 때, 한석봉 4, 5학년 3번, 정약용 4, 6학년 2번 겹쳐서 인용되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고, 주체적인 여성 위인은 유관순 1명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도 일정 비율로 올리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인간관 형성을 제시하는 교과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표 III-9> 제7차 교육과정기 여성 전기문 단원

학년 학기	단원명	차시목표	인물
읽기 4-1	첫째 마당.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생각을 가지런히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유관순
말·듣·쓰 4-1	넷째 마당. 오가는 정 2. 함께하는 우리	여러 종류의 문장을 넣어 글을 완성하여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
읽기 4-2	다섯째 마당. 가슴을 열고 1. 도란도란 오순도순	책을 끝까지 읽으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
말·듣·쓰 5-2	둘째 마당. 발견하는 기쁨 더 나아가기	방언을 이용하여 역할극 대사를 쓰고, 친구들 앞에 서 발표해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

2. 교육과정별 여성 전기문 비교·분석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교재로 전기문을 실었고,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교육과정기에서는 전기문을 정보전달을 위한 글로 사용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교육과정기까지는 교육과정상에 전기문 단원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정보전달을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전기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표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문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기문을 단원으로 설정한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보더라도 남성 위인이 여성 위인보다 그 수가 적었는데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여성 위인을 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빈약하다.

전기문의 구성은 한 인물의 출생과 활동했던 시대적·사회적·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다. 대체로 출생과 성장 과정이나 성격 형성의 과정, 교육 과정, 사회 활동을 통한 그 인물의 인생관, 공적, 교훈과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요소는 인물의 성별, 나이, 국적, 성격, 지식의 수준, 가계, 재능, 외모, 고향, 부모, 관심분야 등 인물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다.

둘째, 사건요소는 성장 과정, 성격 형성 과정, 교육 과정, 언행 등과 그에 따

른 일화와 업적을 말한다.

셋째, 배경요소는 인물이 나고 활동했던 때(시대적 배경)와 활동한 장소(공간적 배경), 가정 환경,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이나 사회 풍조, 사상의 흐름과 국가 사회의 상황이다.

넷째, 비평요소는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 인류에 끼친 공적, 후손에게 남긴 교훈,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작가의 느낌, 생각, 의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인물, 사건, 배경 요소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비평은 주관적인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전기문을 이루고 있는 요소와 구성방법, 집필관점을 기준으로 정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분석·비교하려고 한다. 즉,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비평으로 나누어 보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구성방법과 집필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헬렌 켈러’ 전기문

‘헬렌 켈러’ 전기문은 제1차 교육과정 4학년 2학기과 제4차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 III-10> ‘헬렌 켈러’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제1차	1955	국어	4-2	12. 헬렌 켈러
제4차	1987	국어	6-1	2. 훌륭한 분들 (2)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

<표 III-11> ‘헬렌 켈러’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제1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인물	생존, 외모, 학력	사망 시기, 외모, 학력
사건	언행, 업적, 일화	언행, 업적, 일화
배경	시대적 환경	공간적 환경

<표 III-11> 계속

교육과정 기준	제1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비평	인물에 대한 생각	사건(일화)에 대한 생각 인물에 대한 평가
구성방법	불완전한 일대기적 구성	집중적 구성
집필관점	업적지향적	언행지향적
특징	시간성, 문학적성, 교훈성	시·공간성, 문학적성, 사실성, 교훈성

1) 인물

제 1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가 발행될 1955년 당시에는 헬렌 켈러가 생존하고 있었다. 헬렌 켈러는 우리나라를 1937년에 방문했고, 1968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생존했던 인물이다. 교과서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헬렌 켈러의 출생일은 제시하지 않고, 1968년 여든 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있다.

인물의 외모를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달리 영리한 눈동자와 귀염성 있게 복슬복슬한 얼굴로 헬렌 켈러를 묘사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둥글고 큰 두 눈, 오뚝한 콧날, 야무지게 다문 입술을 가진 얼굴은 무척 똑똑해 보인다고 묘사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교사를 통해 공부, 대학 졸업을 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교사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고 뉴욕에 있는 농아학교에 입학·졸업, 하버드 대학에 입학·졸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사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애인들을 도와주며 전쟁으로 인해 눈이 먼 군인들을 도와주는 등 장애인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구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고 업적을 피상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헬렌 켈러가 장애를 얻게 된 일,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의 만남, 헬렌 켈러의 글공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의 첫 만남, 헬렌 켈러의 글자 공부, 헬렌 켈러의 식탁 예절 공부에 대한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3) 배경

제1차 교육과정을 보면, 헬렌 켈러가 전쟁 중에 눈이 멀게 된 군인들을 구제하는 운동을 전개할 당시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시대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을 보면 터스컴비아역은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이 처음 만난 곳이다. 헬렌 켈러가 살고 있는 곳은 작고 조용한 도시이다.

4) 비평

제1차 교육과정은 장애로 인해 힘들어 했을 헬렌 켈러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인물의 마음에 대해 작가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세 가지 장애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은 일도 비범하게 보이게 표현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서는 헬렌 켈러를 진정 이 세상 어떤 불구자도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나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준 위대한 인물이라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평가 내리고 있다.

작가는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점자책을 읽고, 수학,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헬렌 켈러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설리반 선생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의 첫만남에서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의 첫만남이 헬렌의 답답한 일생을 위대한 사회 봉사자의 일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제시하면서 작가는 이 첫만남을 중요시 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5) 구성 방법

제1차 교육과정은 첫돌 때 재물을 부리고, 열아홉 달 때 병으로 장애를 얻고,

대학 졸업 후 강연과 봉사 활동을 하고, 일곱 살 때 설리반 선생을 만나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열 살 때 외마디 말을 하게 되고 70여세의 노인으로서 장님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보아진다. 제4차 교육과정은 인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 보다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관한 몇 개의 일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6) 집필 관점

제1차 교육과정은 장애를 이겨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업적을 중요시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설리반 선생과 헬렌 켈러의 첫 만남, 헬렌 켈러의 글자 공부, 헬렌 켈러의 식탁 예절 공부에 대한 일화를 제시하고 각 일화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말과 행동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7) 기타

제1차 교육과정은 사실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을 만나고 그 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설리반 선생을 열일곱 살 때 만났으나 열 살 때 외마디 말을 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1차, 4차 모두 헬렌 켈러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1차에서는 말과 글을 배우는 과정을 많이 다루었으나 4차에서는 말과 글을 배우는 과정 보다는 식탁 예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서는 학교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다. 뉴욕에 있는 농아 학교에 입학하여 점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수재들만 갈 수 있다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하였다. 하버드대학이라고 하였는데 하버드대 병설인 래드클리프 여자 대학이 정확한 명칭이다.

나. '퀴리 부인' 전기문

'퀴리 부인' 전기문은 교수요목기 6학년 1학기과 제2차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 III-12> '퀴리 부인'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교수요목기	1949	초등국어	6-1	제이십 과 퀴리 부인
제2차	1970	국어	5-1	8. 퀴리 부인
제3차	1974	국어	5-1	4. 아름다운 생활 (2) 퀴리 부인

<표 III-13> '퀴리 부인'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교수요목기	제2차 교육과정기	제3차 교육과정기
인물	고향, 부모, 관심분야, 학력	고향, 부모, 재능	제2차 교육과정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함.
사건	언행, 업적	언행	
배경	공간적·시간적 환경, 가정 환경,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가정 환경	
비평			
구성방법	불완전한 일대기적 구성	집중적 구성	
집필관점	업적지향적	언행지향적	
특징	시간성, 문학성, 교훈성, 역사성	문학성, 교훈성, 역사성	

1) 인물

교수요목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는 인물의 출신, 부모, 관심분야, 학력을 다루고 있다. 퀴리 부인은 폴란드 출신이고, 아버지는 학문 연구에만 뜻을 둔 학자로 중학교 물리학 선생이다. 퀴리 부인은 이과에 재미를 붙여 물리,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퀴리는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 화학을 전공하고 학사호를

얻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은 인물의 고향, 부모, 재능, 학력을 다루고 있다. 퀴리부인의 고향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이다. 아버지는 장학관이었다. 퀴리부인은 영리하고, 공부를 잘 하여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하였다. 그리고, 퀴리는 언니들이 새 책을 한권 배우는 동안에 마리는 두 권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 여러 가지 공부 가운데서 물리나 수학을 좋아했다. 퀴리 부인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등상을 받았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2) 사건

교수요목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과 생활, 남편과 함께 우라늄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업적을 다루고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기에 폴란드인이 아닌 프랑스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것을 그다지 자랑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는 것을 거절한 퀴리 부인의 행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는 폴란드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폴란드 말을 공부하고 있을 때 러시아 장학관이 나타나 겪게 되는 일, 퀴리부인을 놀래 주기 위한 언니들의 장난, 6년 동안 가정교사를 해서 언니에게 학비를 보내 대학을 졸업시킨 일, 언니를 졸업시키고 남은 돈으로 소르본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한 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글 마지막에는 퀴리라는 학자와 결혼하고도 연구를 계속하여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하고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상을 받았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3) 배경

교수요목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 공간적 배경은 파리고, 1891년, 1894년, 1895년, 1898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환경은 빚을 많이 져서 매우 가난하여 학비를 내기 위하여 가정교사도 하고, 연구실 청소를 하였다.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겨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의 시대적 배경은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략해서 합병한 상황이었다. 폴란드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몰래 폴란드의 말과 글을 공부하였고, 러시아 장학관이 불시에 학교를 감독하였다. 러시아에 합병된 후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면서 살림이 쪼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어머니는 병을 앓아 눕게 되고 결국 퀴리부인이 열 살 때에 세상을 떠났다. 퀴리는 가난하고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폴란드에는 여자가 가는 대학교가 없어서 여자가 대학교에 가려면 프랑스 파리로 가야 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

4) 비평

교수요목기나 제2차 교육과정기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는 비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구성방법

교수요목기 '퀴리 부인' 전기문은 퀴리 부인의 출생과 사망은 다루지 않고, 1891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 진학, 1894년 물리학 학사호 취득, 1895년 화학 학사호 취득, 1895년 피에트 퀴리와 결혼, 1898년 남편과 함께 우라늄 광 속에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이라는 원소 발견하여 파리 대학에서 제일 높은 학위와 노벨상 받음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 '퀴리 부인' 전기문은 학교에서 폴란드 말과 글을 몰래 배울 때 러시아 장학관이 갑자기 방문하여 겪는 일, 퀴리 부인을 놀래 주기 위한 언니들의 장난, 6년 동안 가정교사를 해서 번 돈으로 언니 대학교 졸업시킨 일 등의 일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6) 집필관점

교수요목기 '퀴리 부인' 전기문은 세상에 가장 드물고 적은 원소로, 값이 매우 비싼 라듐을 발견하여 세계 과학에 큰 공을 세운 업적을 중요시 다루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 '퀴리 부인' 전기문은 일화 속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 기타

1898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점과 그 당시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략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역사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 기의 ‘퀴리 부인’ 전기문에서는 어머니와 퀴리의 애뜻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퀴리는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 ‘신사임당’ 전기문

‘신사임당’ 전기문은 교수요목기 6학년 1학기, 제2차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제3차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제4차 교육과정 5학년 2학기, 제5차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네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 III-14> ‘신사임당’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제2차	1970	국어	6-1	인류의 길잡이 12. 율곡의 어머니
제3차	1977	국어	6-1	1. 빛을 남긴 사람들 (1) 율곡의 어머니
제4차	1985	국어	5-2	4. 훌륭한 분들 (2) 신 사임당
제5차	1990	읽기	5-1	13. 신사임당

<표 III-15> '신사임당'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제2차 교육과정기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인물	고향, 나이, 성격, 재능, 사망	전과 동일	출생, 고향, 남편, 사망	전과 동일
사건	언행, 일화		시, 일화	
배경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비평	인물의 마음에 대한 생각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	
구성방법	집중적 구성		집중적 구성	
집필관점	언행지향적		언행지향적	
특징	역사성, 교훈성, 문학성		역사성, 교훈성, 문학성	

1) 인물

제2차 교육과정기와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신사임당' 전기문에서 신사임당의 고향은 강릉이고, 서른 여덟 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신사임당은 효성이 지극하고, 남편에게 항상 분에 넘치지 않는 옳은 길을 권고하였다. 신사임당은 문장이나 시에도 능했으며 서화, 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리고, 학식도 깊었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였다. 마흔 살이 넘어 일생을 마쳤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인물의 출생, 고향, 성격, 남편, 사망을 다루고 있다. 신사임당은 약 500년 전에 강릉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성이 깊었고, 항상 말과 행동이 겸손하였다. 남편은 이원수로서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하였다. 신사임당은 선도 못 되어 자녀들의 성장을 다 보지도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

2) 사건

제2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시, 신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남편이 옳은 길을 가도록 권고한 일, 율곡이 어머니를 따라 강릉의 외가에 갔을 때의 일, 신사임당의 아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일화가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의 시, 남편이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내조한 일, 잔치에 간 일, 신사임당의 아들 교육, 잔칫집에서 그린 그림에 관한 일화가 내용을 이루고 있다.

3) 배경

제2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출가하면 남이라는 풍습이 엄격히 지켜지는 시대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자는 남자처럼 자유로이 공부할 수도 없었고, 밖을 마음대로 나다닐 수도 없었던 때이다. 신사임당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웠다. 강릉에서 생활하다 결혼하면서 서울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다.

4) 비평

제2차 교육과정기와 3차 교육과정기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신사임당의 마음을 작가는 서운함과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신사임당에 대한 평가를 글 중에 여러 번 내리고 있다. 신사임당을 처음에는 남편에게는 어진 아내,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로, 두 번째는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 효성이 지극한 딸로,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이 자랑할 여성의 거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율곡이 높은 벼슬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웠고, 청렴결백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의 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에서 작가는 신사임당을 지극한 효녀, 착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여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에서 작가는 신사임당을 모든 여성의 본보기라고 기술하고 있다.

5) 구성방법

제2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남편이 옳은 길을 가도록 권고한 일, 율곡이 어머니를 따라 강릉의 외가에 갔을 때의 일 등 몇 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남

편이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내조한 일, 잔치에 간 일, 신사임당의 아들 교육, 잔칫집에서 그린 그림에 관한 일화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6) 집필관점

제2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몇 개의 일화 속에 나타난 신사임당의 성품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행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은 몇 개의 일화 속에 나타난 신사임당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극한 효녀, 착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언행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7) 기타

제4차 교육과정기 ‘신사임당’ 전기문의 대단원 목표는 <인물, 사건, 장면, 사물을 묘사한 부분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이다.

라.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은 제3차 교육과정 3학년 2학기과 제4차 교육과정 3학년 2학기, 제5차 교육과정 읽기 3학년 2학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을 여성 전기문으로 분류한 이유는 바보였던 온달이 고구려 제일의 용장된 것은 모두 평강 공주의 덕분으로 평강 공주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전기문을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온달과 평강 공주’에 등장하는 평강 공주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표 III-16>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제3차	1979	국어	3-2	8. 겨울 밤의 이야기 (2) 온달 장군
제4차	1982	국어	3-2	8. 훌륭한 분들 (1) 온달과 평강 공주
제5차	1992	읽기	3-2	9. 훌륭한 사람 온달과 평강 공주

<표 III-17>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인물	국적, 재능, 신분	신분, 재능	제4차 교육과정기의 ‘온달과 평강 공주’ 전 기문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함.
사건	일화, 업적	전과 동일	
배경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비평			
구성방법	집중적 구성	전과 동일	
집필관점	업적지향적	전과 동일	
특징	문학성, 교훈성, 역사성	전과 동일	

1) 인물

제3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에서 평강의 국적은 고구려이고 신분은 고구려 평원왕의 딸로 공주이다. 평강 공주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글공부도 뛰어나 바보 온달이 뛰어난 무술 능력을 갖추고 글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에서 평강은 대궐에서 쫓겨난 공주이다. 글공부, 활쏘기, 말타기를 잘 한다. 평강의 국적은 ‘옛날’이라고만 하고 국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5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은 제4차 교육과정기와 같아서 생략한다.

2) 사건

제3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은 크게 임금님과 사냥해서 뛰어난 실력으로 상을 받은 일화와 북쪽 오랑캐를 무찔러 평원왕으로부터 높은 벼슬과 상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평강 공주와 관련지어 본다면, 바보 온달에게 글과 활쏘기, 말타기를 가르쳐 사냥대회에서 상을 받게 하였고, 북쪽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온달을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온달과 함께 평원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 제4차 교육과정기와 제5차 교육과정기의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은 제3차 교육과정기와 내용이 같아 생략한다.

3) 배경

제3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의 시대적 배경은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이며 ‘온달은 장수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고 베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천한 신분이면 벼슬을 하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이지만 여러 전투에서 오랑캐를 물리친 공을 인정해 왕이 벼슬을 줄 수 있는 시대적 상황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의 시대적 상황은 북쪽 오랑캐가 침략해 온 상황이다. 제3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평원왕 때’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는 제4차 교육과정기와 내용이 같아 생략한다.

4) 비평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모두 인물에 대한 평가, 생각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5) 구성방법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의 구성 방법은 모두 사냥대회와 오랑캐와의 전쟁, 두 가지 일화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구성이다.

6) 집필관점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 모두에서 온달이 오랑캐를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은 평강 공주의 내조 덕분이므로 온달의 업적은 평강 공주의 업적이 된다. 바보였던 온달을 용맹한 장수로 만든 평강 공주의 적극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7) 기타

한 나라의 공주와 미천한 신분의 남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온달과 평강 공주’ 전기문은 이러한 사회

적 통념을 깬다.

바보 온달을 고구려 제일의 용장으로 만든 적극적 성격의 평강 공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의 성공을 위해 여자의 내조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마. ‘나이팅게일’ 전기문

‘나이팅게일’ 전기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4차교육과정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1948년 3월에 우리나라가 적십자사에 가입하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이팅게일’ 전기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8> ‘나이팅게일’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교수요목기	1948	초등국어	5-1	제 십오 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제1차	1956	국어	5-2	적십자 정신 11. 나이팅게일
제2차	1968	국어	5-2	적십자 정신 10. 나이팅게일
제3차	1976	국어	5-2	9. 나이팅게일
제4차	1982	국어	5-2	9. 나이팅게일

<표 III-19> ‘나이팅게일’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교수요목기	제1차 교육과정기	제2차 교육과정기
인물	성격, 재능, 학력	관심, 성격, 사망	전과 동일
사건	일화, 업적	일화, 업적	전과 동일
배경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가정형편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전과 동일
비평		인물의 마음에 대한 생각 인물의 일생 평가	인물의 활약에 대한 평가
구성방법	불완전 일대기적 구성	불완전 일대기적 구성	전과 동일
집필관점	업적지향적	언행지향적	전과 동일
특징	문학성, 교훈성, 역사성	문학성, 교훈성, 역사성	전과 동일

<표 III-19> 계속

교육과정 기준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인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사건	전과 동일	전과 동일
배경	전과 동일	전과 동일
비평	전과 동일	전과 동일
구성방법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집필관점	전과 동일	전과 동일
특징	전과 동일	전과 동일

1) 인물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인물의 관심분야, 재능, 학력을 제시하고 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부 놀이하기를 좋아하고, 환자를 간호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능력도 탁월하였다. 학력은 독일의 간호학교를 졸업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나이팅게일은 인형이나 동물을 상대로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할 줄 몰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정부에서 군함을 보내어 맞이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예고 없이 조그만 배로 귀국한 것으로 보아 겸손하였다. 그는 90세의 나이로 잠들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나이팅게일이 1910년 8월, 나이 90으로 잠들었다고 하면서 사망일과 나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 사건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늙은 개를 정성껏 간호해서 살려 준 일, 간호부 공부 과정, 여러 나라의 병원과 맹아원 시찰, 크림리아 전쟁 동안 나이팅게일이 삼십 여 명을 이끌고 활약한 일, 적십자사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간호부놀이,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간호해 준 일, 죽어가는 개를 간호하여 살린 일, 나이팅게일이 여행하면서 언니에게 쓴 편지, 병원놀이를 함께 하는 이웃집 존과의 대화, 큰어머니의 격려, 여러 나라의 교아원과 병원 견학 및 자선사업, 콜레라 환자 간호, 크림리아 전쟁에서 사십 여 명의 간호으로 조직된 간호병 부대를 이끌고 부상 입

은 군인들 2년간 간호, 귀국 후 영국 여왕과 국민으로부터 공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 내용 중에 죽어가는 개를 간호하여 사린 일, 나이팅게일이 여행하면서 언니에게 쓴 편지가 제외되고, 큰어머니의 격려가 아닌 언니의 격려로 바뀌었다.

3) 배경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시대적 배경으로 크림리아 전쟁(1853~56)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간호부를 천하게 여겼던 때라서 부모님이 반대하여 독일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였다. 공간적 배경으로 영국 런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크림리아 전쟁터가 되겠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 등장하는 나이팅게일의 가정 형편을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으로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스, 독일,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을 제시하고 있다. 1854년 러시아가 남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시작되어 1856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크림리아 전쟁이 시대적 배경이 된다. 제2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크림리아 전쟁에 대해서 제1차 교육과정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는 크림리아 전쟁을 크림 전쟁으로 명칭을 바꿨다.

4) 비평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작가는 나이팅게일을 가엾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오로지 간호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하여 진력한 거룩한 봉사의 일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작가는 나이팅게일의 크림리아 전쟁에서의 활약을 이제까진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적과 아군의 구별없이 간호해준 사랑의 정신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작가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5) 구성방법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의 구성 방법은 어렸을 때 죽어가는 개를 간

호하여 살린 일, 자라서 간호법 공부, 스물 다섯 살 때에는 여러 나라의 병원과 맹아원을 시찰, 그 후 몇 해 지나서는 간호 학교 졸업, 그 후 본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경영하면서 환자 간호, 설 혼 네 살에 크림미아 전쟁에 간호부 삼십 여명을 이끌고 나가 부상자를 간호, 전쟁이 끝나서 간호부 학교를 건립, 그 후 적십자사 설립, 우리나라 1948년 3월에 적십자사에 가입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의 구성 방법은 열 살 때, 스무 살 때, 1854년 크림미아 전쟁, 1856년 8월 귀국의 순, 나이 90세로 사망의 순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되, 글의 처음에는 나이팅게일이 간호부놀이와 다치고 죽어가는 강아지를 간호해준 일화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적십자사 창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일대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6) 집필관점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나이팅게일이 크림미아 전쟁 때 삼십 여명의 간호부를 이끌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면서 부상자를 간호해 준 활약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정신은 후에 적십자사 창설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팅게일’ 전기문의 집필관점은 업적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은 적십자가 창설에 토대가 된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크림미아 전쟁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간호와 간호부놀이에서 보여준 행동과 이웃집 존과 나눈 말에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을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

7) 기타

교수요목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은 크림미아 전쟁 때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적군과 아군 상관없이 부상자를 정성껏 간호해 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자는 교훈을 담고 있다. 나이팅게일의 크림미아 전쟁에서의 활약을 담고 있어서 역사성도 엿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은 적십자사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적과 아군을

나누지 않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1854년 일어난 크리미아 전쟁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서 나이팅게일의 활약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 전에 없던 나이팅게일이 뒤낭의 적십자 창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바. ‘유관순’ 전기문

‘유관순’ 전기문은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교육과정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여성 위인 중 교육과정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성 위인은 유관순이다. 제1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의 경우 대단원의 제목을 <훌륭한 사람들>, 소단원의 제목을 <13. 유 관순>으로 제목만 봐서는 유관순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삼일 운동으로 인해 독립 운동이 확산되고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기의 ‘유관순’ 전기문은 전기문이라기보다는 설명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제2차 교육과정 역시 제1차 교육과정과 내용이 같다. 제3차 교육과정의 경우, 간단히 제2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삼월의 하늘>이라는 시만 수록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과 같고 삽화나 사진이 바뀌었을 뿐이다.

<표 III-20> ‘유관순’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제1차	1955	국어	3-2	훌륭한 사람들 13. 유 관순
제2차	1964	국어	3-2	훌륭한 사람들 15. 유 관순
제3차	1976	국어	3-1	1. 새살림 (1) 삼월의 하늘
제4차	1987	국어	4-1	훌륭한 분들 (1) 유 관순
제5차	1991	읽기	4-1	1. 유관순
제6차	1996	읽기	4-1	1. 빛을 남긴 사람들
제7차	2001	읽기	4-1	첫째 마당.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표 III-21> ‘유관순’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제1차 교육과정기	제2차 교육과정기	제3차 교육과정기
인물	사망	전과 동일	.
사건	시, 업적	전과 동일	시
배경	시간적·시대적 배경	전과 동일	.
비평	인물의 업적 평가	전과 동일	.
구성방법	집중적 구성	전과 동일	.
집필관점	업적지향적	전과 동일	.
특징	교훈성, 역사성	전과 동일	.

교육과정 기준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	제7차 교육과정기
인물	학력, 사망	전과 동일	출생, 고향, 학력, 아버지	출생, 고향, 학력, 아버지
사건	시, 일화	전과 동일	일화	일화
배경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전과 동일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가정환경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비평	인물의 업적과 마음에 대한 평가	전과 동일	인물의 신념과 정신에 대한 평가	전과 동일
구성방법	불완전한 일대기적 구성	전과 동일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집필관점	언행지향적	전과 동일	언행지향적	언행지향적
특징	역사성, 문학적성, 교훈성	전과 동일	역사성, 문학적성, 교훈성	역사성, 문학적성, 교훈성

1) 인물

제1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에서 유관순의 사망에 대해서 단순히 일본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에서 유관순은 이화 학당에 입학하였으며 1920년 열 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유관순’ 전기문은 인물의 출생, 고향, 아버지, 학력을 제시하고 있다. 유관순은 1904년 3월 15일에 태어났고,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군 병천면 지령 마을이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선견지명이 있는 선비로서 유관순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신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서울로 보냈다. 유관순은 1916년 이화 학당에 입학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인물면은 아버지가

대를 이어 그 마을에 살아 온 선비 집안의 후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6차 교육과정과 내용이 같다.

2) 사건

제1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은 <삼월의 하늘>이라는 시, 삼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까닭, 삼일 운동 과정, 삼일절의 의의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유관순은 사람들의 앞장을 서서 만세를 부르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업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은 <삼월의 하늘>이라는 시, 삼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까닭, 삼일 운동 일어남, 열 여섯에 만세 운동에 참가, 고향에서만 세 운동 준비, 아우내 장날 만세 운동, 헌병에게 끌려가 고문 당함, 공주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7년형 언도받음, 1920년 열 일곱의 나이로 사망, 독립운동 활발히 전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은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 제시한 <삼월의 하늘>이라는 시를 제외시켰고, 그 대신 유관순의 출생과 아버지, 그리고 이화 학당에 입학하게 된 까닭이 추가 되었고, 그 이후의 내용은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유관순’ 전기문의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기의 것과 비슷하다. 다만, 이화학당 입학 후 방학 중에 고향에 내려가 야학활동을 한 것이 추가되었다.

3) 배경

제1차 교육과정기 ‘유관순’ 전기문의 시간적 흐름은 지금부터 사십 여 년 전, 단기 4252년 3월 1일, 단기 4278년 8월 15일 순으로 되어 있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이다. 제4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 아우내 장터, 집, 공주, 서울이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때이고, 시간적 배경은 1919년부터 1920년까지이다. 제6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은 1904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간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1916년 무렵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이다. 공간적 배경은 제5차 교육과정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은 1902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간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가정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지만, 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다.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제5차 교육과정과 같다.

4) 비평

제1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에서 어린 여학생으로 몸을 바친 유관순 누나를 잊을 수 없다고 유관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의 경우 작가는 유관순을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귀한 생명을 바친 대한의 딸을 잊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관순의 육체는 죽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죽이지 못하였다면서 유관순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에서 작가는 우리 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을 꺾을 수 없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우리 겨레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면서 유관순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과 같다.

5) 구성방법

제1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에서 유관순에 대한 내용만 다뤘을 때는 만세 운동에 앞장선 일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집중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의 경우 삼일 운동이 일어난 날 1919년 3월 1일, 삼일 운동이 일어난 다음 날, 고향에서 만세 부르기로 한 전날 밤, 만세를 부르기로 한 날 아침, 정오, 1920년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대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1902년 출생, 1916년, 1919년 서울, 1919년 아우내 장터, 1919년 감옥, 1920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였기 때문에 일대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6) 집필관점

제1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은 인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삼일 운동과 독립 운동에 관한 내용의 기술이 주된 내용이므로 단순히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술을 놓고 봤을 때 업적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유관순’ 전기문의 경우,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만세 운동에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 일본 헌병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항거하였고 그 정신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한 유관순의 행동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행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제5차, 6차,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제4차 교육과정의 집필관점과 같다.

7) 기타

제5차 교육과정의 대단원 목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를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대단원 목표 및 차시 목표로 이어 받았다. 제1차 교육과정기 때는 탑골 공원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고향에서도 부른 것으로 기술했다. 주동자로 당당히 나서는 태도는 본받을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제7차 교육과정기 때는 출생년월일이 3월 15일로 수정되었고, 고향에서의 만세 운동 준비 과정 가운데 연락 활동을 특별히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4., 5, 6차 교육과정에서 재판 과정 중 유관순 자신이 주모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부분은 빠졌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서 독립운동을 수행한 점을 기리고 본받아 애국심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특별하게 내용이 수정된 것은 없고, 문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한석봉과 어머니를 여성 전기문으로 분류한 이유는 한석봉이 명필이 될 수 있기까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한석봉보다는 어머니 쪽에서 이야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의 경우, 언어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 수록하였기 때문에 분석 기준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표 III-22>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 교과서 수록 현황

교육과정	발행년도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교수요목기	1948	초등국어	5-1	제십삼과 한석봉
제1차	1956	국어	4-2	어머니 10. 한석봉
제2차	1970	국어	4-1	전해 오는 이야기 15. 한석봉
제3차	1978	국어	4-1	5. 전해 오는 이야기 (1) 한석봉
제4차	1985	국어	4-2	2. 훌륭한 분들 (1) 한석봉
제5차	1990	읽기	4-2	2. 한석봉과 어머니
제6차	1996	읽기	4-2	12. 위인들의 삶
제7차	2001	말듣쓰	4-1	넷째 마당. 오가는 정 2. 함께하는 우리
		읽기	4-2	다섯째 마당. 가슴을 열고 1. 도란도란 오순도순
		말듣쓰	5-2	둘째 마당. 더 나아가기

<표 III-23>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 비교

교육과정 기준	교수요목기	제1차 교육과정기		제2차 교육과정기
	인물	직업	전과 동일	
사건	일화	일화		일화
배경	가정 환경			
비평		인물의 마음에 대한 생각		전과 동일
구성방법	집중적 구성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집필관점	언행지향적	전과 동일		전과 동일
특징	교훈성, 문학적성	전과 동일		전과 동일
교육과정 기준	제3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
	인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사건	전과 동일	일화	일화	전과 동일
배경		가정 환경	가정 형편 시대적 배경	전과 동일
비평	전과 동일	인물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	전과 동일
구성방법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집필관점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특징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전과 동일

<표 III-23> 계속

교육과정 기준	제7차 교육과정 4-1	제7차 교육과정 4-2	제7차 교육과정 5-2
인물	.	.	.
사건	일화	.	일화
배경	시대적 배경	.	.
비평	.	.	.
구성방법	.	.	.
집필관점	.	.	.
특징	.	.	.

1) 인물

교수요목기의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하신다.

2) 사건

교수요목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 어머니는 석봉의 공부를 위해 학비를 장만하여 절로 보냄, 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을 글씨를 쓰게 하여 석봉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는 석봉이 글공부하러 절에 갔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온 일과 어머니가 석봉을 시험하는 일 두 가지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는 석봉이 공부하러 절로 떠나기 전에 매를 들었던 일, 석봉의 교육을 위해 절로 보냈던 일, 글공부 중 중간에 집에 돌아온 석봉을 시험하여 꾸짖은 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3) 배경

교수요목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 가정 형편을 퍽 가난하다고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도 가정 형편이 가난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는 남편을 여의고, 석봉에게 밥을 다 퍼 주고 먹을 것이 없어 빈 술의 누룽지를 굽으시고, 혼자 배고픔을 참아 온 것처럼 가정 형편을 매우 가난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이다.

4) 비평

제1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 작가는 글공부를 하러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석봉을 보고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기술하면서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강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에서 작가는 마지막에 명필이 되게 한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의 전기문에서 작가는 마지막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훌륭히 키운 한석봉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이야기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준다고 기술하면서 한석봉을 훌륭히 키운 어머니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5) 구성방법

교수요목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은 어머니가 석봉을 절로 보내 공부시키고, 글공부 도중에 집으로 온 석봉에게 불을 끄고 글씨를 써보게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6) 집필관점

교수요목기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은 가난하지만, 석봉의 교육을 위해 뒷바라지를 다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말을 중요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행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7) 기타

제5차 교육과정기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단원 목표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 글의 줄거리를 말하고, 글을 읽고 난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이고, 제6차 교육과정기의 대단원 목표는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이고 소단원 목표는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말들쓰 4학년 1학기에 수록된 ‘한석봉과 어머니’의 단원 목표는 ‘상대방에 알맞은 말을 써서 예절바르게 말하고 들을 수 있다.’와 ‘여러 종류

의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이다. 학습활동 3은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글씨를 잘 쓰고 싶어 하는 이름 모를 한 젊은 선비를 등장시켜 젊은이가 한석봉에게 묻고, 한석봉이 답하는 대화 형식이다. 학습활동 3은 한석봉과 젊은 선비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지 생각하며 □안에 ‘묻는 문장’을 써 보는 활동이다. 학습활동 4는 불을 꺼져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떡을 찧고, 석봉은 글을 썼는데 어머니가 찧 떡의 크기는 고른 데 석봉의 글씨는 비뚤어져 어머니가 석봉을 나무라는 상황을 제시한 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며 □안에 ‘시키는 문장’을 써 보는 활동이다. 학습활동 5는 앞뒤 내용을 미루어 한석봉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지 □안에 ‘권유하는 문장’을 써 보는 활동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사실성, 문학적성, 역사성, 교훈성을 목적으로 전기문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문장의 특징을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문장을 넣어 글을 완성하는 언어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전기문을 수록하였다. 언어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전기문을 개작하여 수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 참고자료로 ‘한석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수록하였다. 읽기 4학년 2학기에는 성육이가 ‘한석봉’이라는 책을 소개해 준 데 대하여 명규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쓴 편지글이다. 한석봉에 관한 글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가 떡을 찧고, 한석봉이 글을 쓰는 장면의 삽화 한 장만 제시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참고자료로 ‘한석봉’에 대하여 ‘어머니의 떡 찧기와 한석봉의 글씨쓰기’ 일화 중심의 설명을 수록하였다. 언어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석봉을 단지 책 제목으로 이용하고 있고 한석봉이라는 위인에 대한 또는 한석봉 전기문에 대한 내용은 수록하고 있지도 않고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말듣쓰 5학년 2학기에는 ‘되돌아보기’ 부분에 역할극을 하기 위한 자료로 수록되었다. 둘째마당의 두 번째 단원 목표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석봉이 글공부를 하는 도중에 집으로 와서 불을 꺼 놓고 어머니는 떡을 찧고, 석봉은 글씨를 쓴 후 어머니께 꾸중을 듣는 일화를 수록하였다. 강원도 강릉 방언으로 꾸며진 ‘한석봉과 어머니’를 듣기 자료로 제시하고, 표준어를 사용한 대사를 텍스트로 수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 듯이, 여성 전기문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기문에 수록된 인물이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적었다. 교수요목기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은 36단원인데 그 중 여성 전기문은 3단원으로 8%에 불과하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은 33단원이다. 3학년을 보면 전기문 5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으로 20%, 4학년을 보면 전기문 10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으로 10%, 5학년을 보면 전기문 14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으로 7%, 6학년을 보면 전기문이 4단원 실렸으나 여성 전기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전기문 33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3단원으로 9%를 차지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은 28단원이다. 3학년에 전기문 2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 4학년에 전기문 8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 5학년에 전기문 14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2단원, 6학년에 전기문 4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이 실려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전기문이 3학년에 50%, 4학년에 13%, 5학년에 14%, 6학년에 25%를 차지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는 전기문 28단원 중에 여성 전기문은 5단원으로 18%를 차지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은 27단원이다. 3학년에 전기문 5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2단원으로 40%, 4학년에 전기문 9단원 중에 여성 전기문은 1단원으로 11%, 5학년에 전기문 9단원 중에 여성 전기문은 2단원으로 22%, 6학년에 전기문 4단원 중에 1단원으로 2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여성 전기문이 전기문 중 15%를 차지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단원의 전기문이 실렸다. 2학년은 제4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전기문 단원이 실리기 시작하였으나 여성 전기문은 실리지 않았다. 3학년에 4단원 중 여성 전기문은 1단원으로 25%, 4학년에 4단원 중 2단원으로 50%, 5학년에 6단원 중 1단원으로 17%, 6학년에 4단원 중 1단원으로 25%를 차지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전기문 단원은 전체의 14%를 차지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전기문을 단원으로 편성하여 문학 제재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나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전기문을 문학 제재이기 보다는 언어 사용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 읽기 교

과서 3학년에 1편, 4학년에 2편, 5학년에 1편의 여성 전기문을 활용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여성 전기문이 읽기 교과서 4학년에만 2편이 실렸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1학년부터 위인에 관한 글을 텍스트로 수록하고 있다. 말하기·듣기 교과서에 4명의 위인이 실렸는데 그 중 4학년과 5학년에 한석봉의 어머니가 실려 있다. 읽기 교과서에 12명의 위인이 실렸는데 4학년에 유관순과 한석봉의 어머니가 실려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인용된 인물은 모두 31명이고 텍스트로 소개된 인물은 30명, 이 중 완전한 텍스트로 인용된 인물은 16명이다. 주체적 여성 인물은 유일하게 유관순뿐이고 한석봉의 어머니를 4학년과 5학년에서 여러 번 다루고 있으나 주체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둘째, 외국 여성 위인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면, 우리나라 여성 위인은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냈다.

교수요목기 여성 전기문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이 실렸고, 외국의 여성 위인으로 나이팅게일과 퀴리부인이 실렸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 한 명이 실렸으며 외국의 여성 위인으로 헬렌켈러와 나이팅게일이 실렸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과 신사임당, 그리고 한석봉의 어머니가 실렸고, 외국 여성 위인으로 퀴리부인과 나이팅게일이 실렸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 평강공주,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실렸으며 외국의 여성 위인으로 퀴리부인과 나이팅게일이 실렸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평강공주, 유관순,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실렸으며 외국의 여성 위인으로 헬렌켈러가 실렸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여성 위인만 실렸는데 그 인물은 평강공주, 유관순,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과 한석봉과 어머니가 실렸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 한석봉의 어머니가 실렸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위인을 살펴보면, 유관순이 8회, 한석봉의 어머니가 6회, 신사임당이 4회, 평강공주가 3회, 나이팅게일이 4회, 퀴리부인이 3회, 헬렌켈러가 2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위인은 교수요목기부터 꾸준히 수록되었으나 외국의 여성 위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만 수록되었다.

먼저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문의 단원명과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요목기에 수록한 ‘한석봉’ 전기문의 단원명은 ‘한 석봉’이다.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 단원명은 ‘한 석봉’,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단원명이 ‘한석봉과 어머니’로 되어 있어 단원명에서부터 한석봉의 어머니는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조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한석봉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가난한 형편이지만, 직접 가르치지 는 않았지만, 물리적·심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한석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 ‘평강공주’ 전기문의 단원명을 보면,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온달 장군’이었으나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온달과 평강 공주’로 설정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바보였던 온달이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평강 공주 역시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단원명에서나 내용면에서 보조자, 지원자로 그리고 있다. ‘신사임당’ 전기문을 보면, 제2차 교육과정기와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 단원명을 ‘율곡의 어머니’로 설정하여 율곡이라는 인물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보조자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와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단원명을 ‘신사임당’으로 설정하였다. 내용면에서도 제2차 교육과정기와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신사임당을 효녀로서, 현모양처로서 그려내고 있고, 제4차 교육과정기와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예술인으로서의 역할도 그리고 있지만, 효녀로서,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그려내고 있다. 반면, 외국 여성 위인의 경우 퀴리부인, 나이팅게일, 헬렌 켈러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여성 위인의 활동분야가 외국 여성 위인의 활동분야보다 제한적이었다.

우리나라 여성 위인으로 유관순,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강공주이고, 외국 여성 위인으로 헬렌 켈러, 나이팅게일, 퀴리부인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순을 독립 운동가로서,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강공주를 현모양처로서 그려내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각각 헬렌 켈러를 사회복지 운동가, 나이팅게일을 간호사, 퀴리부인을 과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다루고 있

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활약과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물을 다루고 있어 협소적이고 국내적인 인물을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위인이 외국 여성 위인보다 구시대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이 활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넷째, 여성 전기문의 내용면에서 변함이 없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전기문의 내용을 보면 낱말과 문장 수준에서 수정은 있었으나 인물, 사건, 배경, 비평, 집필관점, 구성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의 전체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여성 전기문을 4, 5학년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보면 4, 5학년에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은 수의 전기문을 수록하고 있다. 여성 전기문 역시 다른 학년에 비해 4, 5학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수요목기에 여성 전기문이 5학년에 2단원, 6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에 1단원, 4학년에 1단원, 5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에 1단원, 4학년에 1단원, 5학년에 2단원, 6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에 2단원, 4학년에 1단원, 5학년에 2단원, 6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에 1단원, 4학년에 2단원, 5학년에 1단원, 6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3학년에 1단원, 4학년에 2단원, 5학년에 1단원을 수록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4학년에 2단원을 수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4학년에 3차례, 5학년에 1차례 다루었다. 다시 말해서, 4, 5학년에서 여성 전기문을 70% 정도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성 전기문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교육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느 한 학년에 집중된다보면 여성 또는 남성에 관한 고정관념이 굳어져버리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IV. 새로운 여성전기문 구상

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 기준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교재로 전기문을 실었고,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기문을 정보 전달을 위한 글로 사용하였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다매체·다문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어과 교육내용의 계열적 비체계성, 학습내용 과다 등의 문제점 개선, 미디어 관련 교과 신설 요구 등 사회적, 개인적 요구의 충실한 반영, 국어 교육 학문 공동체 연구 성과의 체계적 반영에 있다.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을 유지하고 영역 간 통합 지도를 강조하였으며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만화, 영화 및 드라마 텍스트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성취 기준에 앞에서 살펴 본 전기문의 특징인 사실성, 역사성, 문학적성, 시·공간성, 교훈성, 감동성을 고려하여 텍스트로 전기문을 활용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알아보았다.

<표 IV-1> 1학년 성취 기준

듣기	<p>【1-듣(1)】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흉내 낸다.</p> <p>【1-듣(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p> <p>【1-듣(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p> <p>【1-듣(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p>
말하기	<p>【1-말(1)】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p> <p>【1-말(2)】 일상 생활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한다.</p> <p>【1-말(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p> <p>【1-말(4)】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다.</p>
읽기	<p>【1-읽(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1-읽(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p> <p>【1-읽(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p> <p>【1-읽(4)】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p>

쓰기	<p>【1-쓰(1)】 글씨를 바르게 쓴다.</p> <p>【1-쓰(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p> <p>【1-쓰(3)】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p> <p>【1-쓰(4)】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p>
문법	<p>【1-문법(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p> <p>【1-문법(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p> <p>【1-문법(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p>
문학	<p>【1-문학(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p> <p>【1-문학(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p> <p>【1-문학(3)】 그림 동화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p>

<표 IV-2> 2학년 성취 기준

듣기	<p>【2-듣(1)】 설명하는 말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한다.</p> <p>【2-듣(2)】 칭찬이나 충고를 들으면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린다.</p> <p>【2-듣(3)】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는 이에게 적절히 반응한다.</p> <p>【2-듣(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p>
말하기	<p>【2-말(1)】 듣는 이를 고려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p> <p>【2-말(2)】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한다.</p> <p>【2-말(3)】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p> <p>【2-말(4)】 문학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p>
읽기	<p>【2-읽(1)】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한다.</p> <p>【2-읽(2)】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p> <p>【2-읽(3)】 재미있는 글에 나타난 상황을 상상한다.</p> <p>【2-읽(4)】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한다.</p>
쓰기	<p>【2-쓰(1)】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p> <p>【2-쓰(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는 글을 쓴다.</p> <p>【2-쓰(3)】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쪽지를 쓴다.</p> <p>【2-쓰(4)】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쓴다.</p>
문법	<p>【2-문법(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p> <p>【2-문법(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p> <p>【2-문법(3)】 낱말과 낱말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p>
문학	<p>【2-문학(1)】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p> <p>【2-문학(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p> <p>【2-문학(3)】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p> <p>【2-문학(4)】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p>

<표 IV-3> 3학년 성취 기준

듣기	<p>【3-듣(1)】 안내 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p> <p>【3-듣(2)】 혼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p> <p>【3-듣(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바르게 듣는다.</p> <p>【3-듣(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p>
말하기	<p>【3-말(1)】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한다.</p> <p>【3-말(2)】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p> <p>【3-말(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p> <p>【3-말(4)】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p>
읽기	<p>【3-읽(1)】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파악한다.</p> <p>【3-읽(2)】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p> <p>【3-읽(3)】 독서 감상문을 읽고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을 구별한다.</p> <p>【3-읽(4)】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p>
쓰기	<p>【3-쓰(1)】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p> <p>【3-쓰(2)】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p> <p>【3-쓰(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p> <p>【3-쓰(4)】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p>
문법	<p>【3-문법(1)】 국어 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p> <p>【3-문법(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p> <p>【3-문법(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p>
문학	<p>【3-문학(1)】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p> <p>【3-문학(2)】 문학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p> <p>【3-문학(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p> <p>【3-문학(4)】 문학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p>

<표 IV-4> 4학년 성취 기준

듣기	<p>【4-듣(1)】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한다.</p> <p>【4-듣(2)】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p> <p>【4-듣(3)】 소개하는 말을 듣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p> <p>【4-듣(4)】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한다.</p>
말하기	<p>【4-말(1)】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p> <p>【4-말(2)】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학급회의에 참여한다.</p> <p>【4-말(3)】 듣는 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한다.</p> <p>【4-말(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p>

읽기	<p>【4-읽(1)】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읽는 방법을 익힌다.</p> <p>【4-읽(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p> <p>【4-읽(3)】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p> <p>【4-읽(4)】 기행문을 읽고 여정과 감상을 정리한다.</p>
쓰기	<p>【4-쓰(1)】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쓴다.</p> <p>【4-쓰(2)】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쓴다.</p> <p>【4-쓰(3)】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쓴다.</p> <p>【4-쓰(4)】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p>
문법	<p>【4-문법(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p> <p>【4-문법(2)】 국어 높임법을 이해한다.</p> <p>【4-문법(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p>
문학	<p>【4-문학(1)】 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p> <p>【4-문학(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한다.</p> <p>【4-문학(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p> <p>【4-문학(4)】 문학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p>

<표 IV-5> 5학년 성취 기준

듣기	<p>【5-듣(1)】 발표를 듣고 매체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p> <p>【5-듣(2)】 토론에서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p> <p>【5-듣(3)】 온라인 대화를 일상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p> <p>【5-듣(4)】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p>
말하기	<p>【5-말(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p> <p>【5-말(2)】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정하여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한다.</p> <p>【5-말(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적절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한다.</p> <p>【5-말(4)】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여 촌극을 한다.</p>
읽기	<p>【5-읽(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p> <p>【5-읽(2)】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p> <p>【5-읽(3)】 다양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p> <p>【5-읽(4)】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p>
쓰기	<p>【5-쓰(1)】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를 쓴다.</p> <p>【5-쓰(2)】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쓴다.</p> <p>【5-쓰(3)】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과하는 글을 쓴다.</p> <p>【5-쓰(4)】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쓴다.</p>

문법	<p>【5-문법(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p> <p>【5-문법(2)】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p> <p>【5-문법(3)】 시간 표현방식을 이해한다.</p> <p>【5-문법(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방식이 달라짐을 안다.</p>
문학	<p>【5-문학(1)】 문학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p> <p>【5-문학(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p> <p>【5-문학(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p> <p>【5-문학(4)】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p>

<표 IV-6> 6학년 성취 기준

듣기	<p>【6-듣(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p> <p>【6-듣(2)】 선거 유세를 듣고 주장하는 말의 적절성을 판단한다.</p> <p>【6-듣(3)】 인사 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p> <p>【6-듣(4)】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p>
말하기	<p>【6-말(1)】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p> <p>【6-말(2)】 학습 상황이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를 통하여 해결한다.</p> <p>【6-말(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p> <p>【6-말(4)】 연극에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p>
읽기	<p>【6-읽(1)】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p> <p>【6-읽(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p> <p>【6-읽(3)】 참여를 요구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p> <p>【6-읽(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p>
쓰기	<p>【6-쓰(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p> <p>【6-쓰(2)】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결방안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을 쓴다.</p> <p>【6-쓰(3)】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축하하는 글을 쓴다.</p> <p>【6-쓰(4)】 여정 건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행문을 쓴다.</p>
문법	<p>【6-문법(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p> <p>【6-문법(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p> <p>【6-문법(3)】 문장에 쓰인 호응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p> <p>【6-문법(4)】 한글의 가치와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p>

<표 IV-6> 계속

문학	【6-문학(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6-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한다.
	【6-문학(3)】 문학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6-문학(4)】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인물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여성 전기문을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학년별 성취기준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7> 여성 전기문 적용 가능한 학년별 성취 기준

학년	영역	성취기준
1	말하기(4)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다.
2	말하기(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3	듣기(2)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3	문학(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3	문학(2)	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3	문학(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3	문학(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4	듣기(4)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한다.
4	말하기(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4	문학(2)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한다.
4	문학(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4	문학(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5	읽기(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
5	읽기(4)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
5	문학(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

1학년 말하기(4) 성취기준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다.’는 이야기를 사건의 순서에 따라 말하게 함으로써 서사적 말하기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성 전기문을 듣기 자료로 활용하여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야기의 내

용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한다. 이야기를 말할 때에는 내용을 이해, 요약, 기억하여야 하므로 학습자가 다소 어려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이 일어난 차례는 연도를 중심으로 한 시간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며 순성에 유의하면서 실감나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에서 실감나게 말하기는 이야기의 내용을 글을 읽듯이 문어 투로 표현하지 않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말하기’는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 ‘(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와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하기’는 1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담화 수준과 범위는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간단한 이야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듣거나 읽은 이야기 중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게 할 때에 인물의 행동이 명료하고 중심 사건이 서너 가지 정도로 간추려지는 전기문을 선정하면 좋을 듯하다.

2학년 말하기 (4) 성취 기준 ‘문학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는 문학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해 봄으로써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작품에는 다양한 언어 표현, 목소리, 어조를 연습할 수 있는 말하기 학습의 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어조를 달리하여 말하는 것은 구어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소리나 어조는 의사소통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말하는 이의 심리를 반영한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인물의 말을 표현해 봄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하는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의 말에 성격이 반영됨을 알고 인물의 성격을 살려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말해 보게 한다. 인물이 말을 실감나게 표현해 본 후 모듈별로 또는 전체 학급에서 작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인물의 말에 성격이 반영됨을 이해하기’는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 ‘(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와 연계

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담화 수준과 범위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드라마, 영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 역할극을 통해 표현해 볼만한 인물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학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이다. 여성 전기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이 부각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할 수 있다.

3학년 듣기 (2) 성취 기준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는 훈화를 통해 이야기의 교훈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 능력 향상과 정서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훈화에서 교훈을 파악하는 것은 내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말하는 이의 중심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중핵적인 과업이다. 훈화를 듣고 교훈을 파악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훈화에 담긴 교훈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효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점을 둔다. 훈화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화나 일화 우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 윤리를 강조하는 훈화나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와 관련된 훈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훈화의 시기, 장소, 목적 등에 따라 말하는 이의 뜻을 헤아려보게 한다. 훈화는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활동의 한 수단으로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훈화를 듣고 그 교훈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주체적으로 교훈을 수용하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적극적인 내면화를 시도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는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는 3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새롭고, 감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다룬 훈화, 강의식 훈화, 온라인 훈화, 사회적 덕망 있는 인사나 웃어른의 훈화가 속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물의 삶을 다루면서 그 인물을 통해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성 전기문을 이 성취 기준에 적합한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3학년 문학 (1) 성취 기준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다.’는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글쓰기나 말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감상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여러 가지 느낌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느낌을 완결된 글이나 담화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작품을 읽은 느낌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마음에서의 쓰기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통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본격적인 쓰기 활동은 그러한 읽기 활동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한편의 감상하는 글을 쓰려면 작품을 읽은 다양한 느낌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활동 아울러 이러한 느낌을 전체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정리하는 활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작품 전체에 대한 느낌을 정제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글이나 담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실제 활동으로 까지 옮길 수 있다면 표현된 글이나 담화는 더욱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의 수용과 이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표현과 관련하여 3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여기에 감상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글에 나타난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두러나는 시나 노래,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재가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즉 여성 전기문을 감상할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학년 문학 (2) 성취 기준 ‘문학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세계가 근거 없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세계와 비슷한 인간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인식할 때 작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나 극본에 드러난 인물, 사건, 배경 등이나 동시의 정경 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과 비교하여 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게 하며 이야기나 극본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동시에는 일상생활의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

서가 압축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작품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를 반영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상상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상의 세계는 상상 세계의 근거가 되며 상상의 세계는 일상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세계는 일상의 세계에 어떤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다. 문학작품의 세계는 글쓴이가 꾸며낸 세계인 것이다. 여기에는 글쓴이의 상상이 가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세계는 상상적인 세계이든 경험적인 세계이든 기본적으로 일상 세계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와 자신의 일상의 유사성은 그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유사성이 읽는 이에게 분명하게 의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의 유사성이 감지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상상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영역의 성취 기준‘(2) 문학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되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즉, 학생들에게 친숙한 세계를 담은 여성 전기문이 적당할 것이다.

3학년 문학 (3) 성취 기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는 이야기나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갈래에 서사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듣는 이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전체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여 파악,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문학작품에 대한 읽기에서 간추리기 활동은 작품에 대한 인상을 명료하게 해주며 다른 활동의 근거가 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간추리기는 원래의 작품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작품에 대한 양적인 축약활동만은 아니다. 그것은 원래 작품을 읽는 이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한편 이야기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도 간추리기 활동은 필요한데 이 시기 학습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과관계 등이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도록 지도는 것이 필요하다. 간추린 내용을 나름의 질서가 부여되어 정리된 담화의 형태로 조나 혹은 전체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정리 활동은 자신의 간추리는 활동에 대한 좋은 교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내용을 간추리는 것과 관련해서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4)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등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 시기 학습자들이 읽을 만한 이야기나 극 갈래 가운데서 적당히 복잡한 줄거리를 가진 여성 전기문을 감상하도록 한다. 작품이 너무 복잡하여 학습자가 간추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작품이나 작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간단한 뒷받침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간추려지는 작품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3학년 문학 (4) 성취 기준 '문학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는 인물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이야기를 꾸미거나 기존의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바꾸어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를 꾸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인물의 특성 파악이나 인물과 사건의 관계 파악 등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에서 내용 요소들의 의미 관계는 분명하다. 경험적인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현재 드러나 있는 것과 다른 삶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는 주어진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에다 다른 특성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원래 인물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으로 조금 바꾸거나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인물은 중심적인 요소로 주어지므로 인물의 특성 파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모든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 꾸미기와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3)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상상적 이야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문학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인물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인물의 개성이 명료하게 드러난 작품이나 인물의 다양한 행위를 보여주는 여성 전기문을 감상하도록 하되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작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변형되었을 때

원작 작품과 비교하여 변형된 작품의 수용 효과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4학년 듣기 (4) 성취 기준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한다.’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핵심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야기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되 특히 이야기에서는 인물, 사건 같은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들을 때 자칫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이끌리어 전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주인공들은 이야기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가’,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건의 해결을 통해 듣는 이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세부 내용들의 연결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 파악하기’는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 수준과 범위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 이야기, 우화, 창작 이야기, 인물과 사건의 구성요소가 분명하고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인 이야기, 우화, 창작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 전체에서 인물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사건이 비교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여성 전기문이 알맞을 것이다.

4학년 말하기 (4) 성취 기준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는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이와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 대한 감동을 소통하는 일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에도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 감동의 요소를 찾아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의 요소는 작품 내적인 요소 즉,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촉발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동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내용을 자기 나름으로 재구성하여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감동의 요소는 작품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의 체험이나 처지 또는 생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작품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감동을 표현할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 같이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작품을 읽고 말하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것과 감동적이었던 까닭을 설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전기문을 읽고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감동을 말해 보게 한다.

4학년 문학 (2) 성취 기준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는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통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 작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작품을 이해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최소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개념들 가운데 작품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개념들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작품은 전체를 이루는 하위 요소인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의 관련을 통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하위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이다. 이들 요소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작품에 대하여 말하기, 쓰기 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작품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기능적인 하위 구성 요소와 글 전체와 관련하여 4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1)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는 이야기 제재의 경우에 인물, 사건, 배경이 두드

러지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인물, 사건, 배경, 비평 등이 잘 나타난 여성 전기문을 제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학년 문학 (3) 성취 기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인물의 처지 및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을 인물이 살아가는 시대의 배경 및 우리 일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작품에서 시대 배경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 인물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의 배경과 관련됨을 이해하도록 하며 인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문학 작품에는 인물이 존재하고 그 인물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 인물의 그러한 삶은 우리 시대의 삶 혹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생활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 성취 기준은 인물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및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갈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 배경에 주목한다면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는 시 작품보다는 서사 이야기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이 그러할 것이다.

4학년 문학 (4) 성취 기준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는 작품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포함한 감동을 감상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감상문 갈래는 학교에서 쓰는 문학적 글쓰기 갈래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감상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서 편지글이나 일기 등의 형식으로 질서화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문학적 수용 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읽는 활동도 실상 쓰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구체화의 정도가 약하고 자기 내부에서의 쓰는 활동에 불과

하다. 작품을 읽은 느낌은 구체적으로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독자와의 의사소통에 구체적인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직접 써 보는 과정을 통하여 머릿속의 생각은 구체적인 모습을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재가 제한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글쓰기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작품들이 효과적이다. 특히 시 갈래의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해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글쓰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5학년 읽기 (1) 성취 기준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비문학적인 서사문을 성공적으로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시간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건이 중심이 되고 내용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는 서사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 글을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들 간의 합리적인 연관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등 사실적인 서사의 읽기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건을 기록한 글은 실제 있었던 일을 서사의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일어난 일이 서사의 방식으로 짜져 사건과 사건이 필연 또는 개연의 인과 관계로 연결되며 한편의 글을 이룬다. 사건 기록의 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잘한 행위들을 분류하여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으로 구성하고 이들 사건이 각각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거나 추리하게 한다. 그리고 각 사건이 발단, 전개, 결말 등 글 전체의 전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추리하여 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때로 사건이 시간순서대로 배열되기보다 시간상 역전되거나 재배치되어 진술되는 등 독특한 구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성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술된 사건과 관련한 상황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을 알고 이들 맥락과 관련하여 사건이 당대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건은 언어로 기록되면서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갖기 어렵고 기록자의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해석된 바가 추가되게 마

런이므로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사건 기록의 의의를 생각하고 시사점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문제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사건의 기록을 찾아 읽게 하고 사건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를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는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사문, 역사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서사 글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문, 일상사를 기록한 생활문, 관찰이나 시를 통해 사건을 기록한 보고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은 각종 역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성 전기문은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성취 기준에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5학년 읽기 (4) 성취 기준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는 삶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가지게 해 주는 글인 전기문을 즐겨 읽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전기는 인물의 위대성과 함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적 면모를 그린 글로서 허구적인 글과는 달리 실존했던 인물의 삶이라는 점에서 감동과 여운이 더 클 수 있다. 인생에 대한 꿈을 키워야 할 시기에 전기문의 가치를 알고 즐겨 읽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고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며 전기문을 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다.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인물의 생애 및 그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전기문을 읽으며 인물의 한 일이나 겪은 일, 주요 사건과 업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 사회·문화적 분위기나 여건 등에 대하여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당대의 현실에 대해 인물이 취했던 태도나 신념, 행동 등에 비추어 인물의 가치관과 됨됨이를 판단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인물의 이런 면모에 대하여 평가하게 한다. 전기문은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 외경의 느낌을 갖게 하는 면이 있지만 위대함의 이면에 꿈꾸면서도 갈등하고 의연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음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 및 평가와 함께 인

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삶에 대한 위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는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전기문, 인물의 삶을 기록한 전기문이나 평전을 대상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평가 받은 인물과 칭송 받는 현존 인물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록한 글을 모두 다룰 수 있다. 다만, 평가가 신뢰할만한 평가의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글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쓴 회고록과 자서전 등을 제외한다. 자료적 전기와 재구성 전기, 비평적 전기 등을 포함하되 허구나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전기 소설이나 허구적 전기는 제외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없어야 하고 인물의 위대성보다 인간적인 면에 주목하여 기술된 것이 바람직하다.

5학년 문학 (2) 성취 기준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작품에서 사건의 시작 부분이나 전개 과정이 달라진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될지 반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해된 전체 사건 내용을 배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건의 전개를 인물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배경의 특성과 관련해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물의 특성과 관련해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은 더 초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는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분명해 질 것이고 이 두 관계가 분명해진 연후에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 과정과의 관계 파악하기 나아가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기 등의 활동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인물의 모습과 관련해서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와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고 5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사건의 전개가 분명한 작품,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여러 가지 제재의 다양한 작품들이 고루 사용될 수 있으나 특히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인물과의 관련이 강조된 여성 전기문을 사용하여 감상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전기문을 문학 교재로 사용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로 전기문을 문학 교재로 사용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로 전기문을 사용한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전기문을 문학 교재가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의 텍스트로 시, 소설, 극, 수필과 비평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기문은 제외되어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 정서 표현의 글’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전기문은 사실성에 바탕을 둔 글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속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기문은 정보 전달이라는 언어 사용 목적에 텍스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전기문은 주로 3,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에 적합한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문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성을 잘 살려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 간추릴 수 있고, 문학성을 잘 살려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문학작품 이해하거나 사실성과 역사성을 잘 살려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감동성과 교훈성을 잘 살려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하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을 평가하거나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여성 전기문 내용 수록 방향

전기문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는 글이다. 전기문은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과 관련되는 백과사전이다. 교과서 보다 훨씬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 학생들에게 재미난 읽을거리가 되어 학습의 흥미를 높인다.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지며 그 중 전기문에 나타나는 인간 성장의 단계는 제3

기인 권위도덕으로부터 자율도덕에로의 과도기와 제4기인 자율적 도덕의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다.²⁴⁾

아동발달은 양적·질적 변화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장애기(4세경까지)→옛이야기(4~6세기경)→우화기(6~8세기경)→동화기(8~10세기경까지)→전기(10~12세기경까지)→소설기(12~15세기경까지)로 나눈다. 그 중에서 전기기는 생활 속에서 현실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저항에 대하여 반발하며,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 소위 반항기의 심성이다. 역경에 도전하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글에 공명한다.²⁵⁾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기의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국어 교과서에 전기문이 수록되어야 하고, 남성 위주의 편중된 인물이 아닌 여성 인물에 관한 전기문도 수록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선정하여 요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기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를 거쳐 오면서 부분적인 변천은 있었으나 대폭적으로 변천된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화를 첫 장면에 도입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도록 일부분을 바꾸어 수록하였다. 대개가 노력하여 성공한 내용이고 실패를 수록한 전기문은 없었다. 모두가 고난을 극복한 위인들이었으며 사회를 이끌어 갈 내용으로 수록하였다고 본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기문의 인물이 바뀌기도 했는데, 어떤 인물을 선정하여 전기문의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여 교육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전기문은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인물이라도 어떤 일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여성 위인을 어머니로서 그려낼지, 현명한 아내로서 그려낼지, 예술가로서 그려낼지 등은 작가의 서술 방법에 달려 있다.

전기문의 대다수가 업적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전기문을 수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들에게 주인공의 훌륭한 인격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동들이 전기문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동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문 속의 인물의 일생을 통하여 남의 생활 방식을 살피고 그 생활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릴 수 있으며 거기

24) 정인석, 《교육심리학》, 재동문화사, 1970. pp. 161-162

25) 박수자,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성 있는 사회인으로서 긍지와 포부를 갖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여성 전기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수록되어야 한다.

첫째, 인물 선정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여성 인물들을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서 여성인물은 남성인물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시대, 직업, 국적 등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신분이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여성보다는 남성, 우리나라 여성 인물보다는 외국의 인물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위인의 분야를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장래 희망을 선정하거나 앞으로 인생의 본보기로 삼고 살아갈 인물을 정하는데 있어 앞을 내다보는 눈이 좁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모양처, 독립운동가에 그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 과학자, 현모양처, 교육자, 간호사, 인도주의자, 사회 운동가 등 그나마 다양한 편이다. 오늘날 지향하는 여성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당시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위인 선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지금부터는 오늘날 국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인물을 찾아내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옛날의 여성 인물과 오늘날의 여성 인물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장 기술면에서 생생한 움직임과 분명한 가치와 호소력, 흥미를 끌만한 낱말로 쓰되, 지나친 과장은 하지 않아야 한다. 문장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행동, 분위기, 인물의 성격 묘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인물의 훌륭한 행동과 업적이 그 성격과 마음씨에 비롯됨을 강조하여 그들이 어떤 점에서 남들과 달랐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학생의 입장에서 씌어져야 한다.

위인이란 어릴 때부터 하나같이 남달리 뛰어났고 모든 면에서 남의 본보기가 되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인간적 갈등도 별로 겪지 않고 마치 예

정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실패 없이 그리고 매우 훌륭하게 그것을 성취해낸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26)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위인의 일생은 자기들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은연중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전기문에 제시되는 위인들이 출생, 성장, 학업, 공적, 언행 등 지나치게 모범적 전형인물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그들 인물에 대한 친밀감을 멀리하게 하고, 생소함과 당혹감을 자아내게 하며, 교육적 의도가 너무 투시적이어서 전기문에 대한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나 본다. 아동들의 소질과 능력, 욕구가 다양해지는 이 때, 전기문의 인물 또한 이 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을 때에만 아동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녀 불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려 하는 교육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과서는 가장 중심적인 자료이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하여 그들의 신념과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교과서를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며 그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므로 학생들에게 있어서나 교사들에게 있어서나 교과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나 국가는 교과서를 통해 그 지배적인 가치와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전기문 내용에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달리 취급하면, 그것은 은연중에 남녀 불평등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문화의 급진적인 발달과 더불어 교육의 폭넓은 개방으로 여성에 대한 자각이나 사회적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수를 보더라도 남녀의 비율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역할의 수행 면으로 보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현모양처의 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잘 못 그려 학생들이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식교육을 잘 시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로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잠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잠식하게 되어 훌륭한 위인이란 남성만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을

26) 장상규, 「전기문의 속살연구」, 석사학위논문(경상대, 1985)

심어주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은 남성들에게도 남성 위주 사고 방식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론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남녀 수를 똑같이 하고 심지어 그 신분이나 사회적 역할 업적 등을 남성과 경쟁하듯 실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 존재방식과 기능에 따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제각기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전기문일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애국심을 가치관으로 하는 여성 전기문으로는 ‘유관순’ 전기이 전부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애국심을 강요하는 식의 낡은 수법은 자라나는 학생들로부터 감동 감화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시대적 상황에 접해보지 못해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목숨 바치고 적의 우두머리를 쏘아 죽이는 식의 나라사랑 방법을 강요하는 수법은 과감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에 맞는 아이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에 부합되는 나라 사랑의 길을 배워 갈 길을 열어주었으면 한다. 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밑거름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개인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가의 집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골프채 하나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린 박세리, 김미현, 신지애,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별 피겨 여왕 김연아 등과 같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누구나 감명 깊게 받아들인다.

3. 여성 전기문의 재조명

국어 교과서에 수록할 제재는 무엇보다도 좋은 글이려야 한다. 좋은 글이란, 형식상의 특징이 분명한 글,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글, 가치관이 스며있는 글이다.²⁷⁾ 전기문 제재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기문의 특징이 분명하고 재미가 있으며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동일시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7) 문교부, 「국민학교교사용지도서5-1」, 1989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위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여성 위인은 퀴리부인, 헬렌 켈러, 나이팅게일뿐이고, 우리나라의 여성 위인은 유관순, 신사임당, 한석봉의 어머니, 평강공주로서 남성 위인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다. 좀 더 많은 숫자의 여성을 실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여성은 ‘유관순’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 위인의 직업을 보면, 외국의 경우 과학자, 교육자, 간호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운동가, 현명한 어머니, 내조 잘하는 아내로 극히 제한적이다.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의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인물들은 신분이나 그 주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정치가, 학자나 장군, 독립운동가 등 영웅이 아니면 업적이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 대부분이다. 드라마 사극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남성 영웅 위주의 이야기였는데 요즘 들어 선덕여왕, 자명고, 천추태후처럼 새로운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욕구와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부응하는 인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게 기존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여성 인물을 재조명 하고, 새로운 여성 인물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 전기문에서 두 인물을 나눠서 두 개의 전기문을 구성해도 좋을 듯 하다.

미국의 유명한 TIME 지는 20세기의 위대한 100명의 인물에 ‘기적의 헬렌 켈러’라는 제목과 함께 헬렌 켈러를 포함시켰고 그의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소개하기도 했다.

‘헬렌 켈러’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인물로서 오늘날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인물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어릴 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혀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인생의 모델로 삼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

을 것이다.

‘헬렌 켈러’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880 - 6월 27일, 미국 앨라배마 주 터스컴비아에서 출생하다.
- 1882 - 2월, 열병을 앓고 난 뒤에 시력, 청력을 잃고 말을 못하게 되다.
- 1886 - 볼티모어의 유명한 의사 크시홀름 선생님에게 눈을 보였으나, 나를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부모가 낙심하였지만 벨 박사를 소개받아 희망을 품다.
- 1887 - 3월 3일,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의 가정교사로 오다.
- 1888 - 5월 26일, 퍼킨스 맹아 학교에 가다.
- 1890 - 3월 26일, 보스턴의 농아 학교에서 플러 선생님을 만나 발성법을 배우고 말을 하다.
- 1891 - 귀머거리 소년 토미를 위해 모금을 하다.
- 1893 - 3월, 설리번 선생님과 여행을 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를 견학하고 여행에서 돌아와 모금운동을 벌여 터스컴비아에 도서관을 세우다.
- 1894 - 뉴욕의 라이트 해머슨 농아 학교에 입학하다.
- 1896 - 7월 8일, 세인트클레어에서 열린 농아 교육 협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하다. 10월, 아버지 사망. 9월,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입학하다.
- 1899 - 6월 29일, 레드클리프 여자 대학에 입학하다.
- 1904 - 레드클리프대학 졸업. 영문학에서 우등상을 받다.
- 1905 - 랜 섬에 농장을 사고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살다.
- 1906 - 매사추세츠주 맹인구제위원으로 활동하다.
- 1918 - 자기가 쓴 책이 영화화되어 자신이 주연배우가 되다. 어머니가 사망하다.
- 1920 - 오흠 극단에 들어가 강연을 하여 그 돈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다.
- 1924 - 미국 맹인협회에 소속되다.
- 1931 - 2월, 템플 대학으로부터 인도 박사호를 받고, 9월 제 1회 세계 맹인 대회가 뉴욕에서 열려 각 대표로부터 환영인사를 하다.
- 1932 - 글래스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호를 받다.
- 1936 - 10월 20일,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설리번 선생님 사망하다.
- 1937 - 대한민국을 방문하다.
- 1942 - 제2차 세계대전의 부상병 구제 운동을 전개하다.
- 1964 - 9월 14일,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매달을 받다.
- 1952 -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받다.

1968 - 6월 1일, 코네티컷 주의 웨스트포트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다.』

‘헬렌 켈러’가 졸업한 대학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04년 레드클리프대학을 졸업하였다. 레드클리프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여자대학으로 하버드 대학교 내에 병설되어 있다. 하버드대학교와 교수단 및 교과과정을 공유하지만 독립된 기관이다. 1879년에 창립되었고, 졸업생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된다.

1880년 미국 앨라배마주의 터스컴비아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 그녀는 20세기의 기적이란 칭호까지 받는 놀랄 만한 인물이 되었다. 헬렌은 설리번 선생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20세 때 레드클리프 여자 대학에 입학하였다. 세계 최초의 대학교육을 받은 맹농아자로서 1904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 그녀는 맨 처음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배우는 데 7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그녀는 시련 극복의 의지로 최고 학부까지 나오게 되었고, 희랍어, 라틴어, 불어 등에 통달하게 되어 온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설리번 선생’의 경우,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사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강조하여 ‘설리번 선생’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 장님이거나 다름없던 앤 설리번은 1886년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해 어릴 때의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6세 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인내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수화용 알파벳을 사용하여 1개월 만에 헬렌 켈러에게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 후 역시 장애아인 로라 듀이 브리지맨(1829~89)을 가르쳐 두 번째로 농아인 아이에게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냈다. 헬렌 켈러가 완전한 어휘력을 구사하고, 천재의 기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와 설리번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설리번은 켈러와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에 다니면서, 1904년 켈러가 졸업할 때까지 그녀를 위해 책을 읽어주고 손에 강의 내용을 써주었다.

1905년 문학비평가인 존 엘버트 메이시와 결혼했는데, 그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집필을 도와주었다. 1913년에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 후에는 켈러와 함께 세계여행을 자주 하면서 강연을 했다.

1936년 10월20일 헬렌 켈러가 지켜보는 앞에서 설리번 선생님님은 사랑하는 제

자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이때 설리번 선생님은 70살이고, 헬렌 켈러는 56살이었다. 헬렌 켈러가 7살 때 가정 교사로 자청한 뒤, 49년 동안 헬렌 켈러의 친구이자, 빛이 되고, 안내자이자 스승이 되면서 불행한 헬렌 켈러를 세계의 큰 인물로 키워 주고 눈을 감았다.

헬렌 켈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은 바로 앤 설리번이었다. 그녀에 관한 책으로는 벨라 브래디가 쓴 전기 <앤 설리번 메이시(Anne Sullivan Macy)>(1933), 헬렌 켈러가 쓴 <선생님 : 앤 설리번 메이시(Teacher : Anne Sullivan Macy)>(1955)가 있다. 그리고 윌리엄 기브슨의 <기적의 교사(The Miracle Worker)>(1957)는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나중에 영화로도 상영되었다(1962). 1980년에는 조지프 P. 래시의 <헬렌과 그 스승 :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메이시의 이야기(Helen and Teacher : The Story of Helen Keller and Anne Sullivan Macy)>가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책을 참고하여 앤 설리번에 대한 새로운 전기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²⁸⁾

나.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의 경우 여성 최초라는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마리는 방사능을 함유한 라듐을 발견하여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고, 191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초로 두 번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으로서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1922년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이는 퀴리 부인이 태어난 1867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 교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때에 여성 최초라는 점은 학생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점이다.

애국심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퀴리 부인은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인 피에르 퀴리와 결혼하여 프랑스인이 되었고, 두 딸에게 두 개의 조국을 물려주기 싫어 완전한 프랑스인으로 키우려고 애쓴 점은 조국을 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28) EBS, "헬렌 켈러", 지식채널 e.

다. 유관순

전기문은 실제 인물의 기록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자료 속에서 항상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 출처를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야 한다.

유관순에 관한 각종 기록물과 관련 인사들의 증언, 현장 탐방 등의 방법으로 알아본 유관순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⁹⁾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338번지에서 유중권과 이소제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이화 학당에 재학 중인 그녀는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의 독립만세운동과 3월 5일의 서울역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향하여 1919년 4월 1일 병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병천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경성 복심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받고 복역 중,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문에서 수정할 부분은 유관순의 출생일이 1902년 3월 15일이 아니라 1902년 12월 16일이라는 점, 서울과 공주에서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 아니라 경성 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천안군 병천면 지령 마을을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로 수정해야 한다.

이 기본 골격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적인 내용을 덧붙이면 보다 사실성에 충실한 전기문이 될 것이다.

라.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교수요목기, 2차교육과정기부터 5차교육과정기까지 5번 교과서에 실린 여성 인물이다. 내용 모두가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며 효성이 지극하고 어진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그녀의 뛰어난 효성과 재질은 인정되어진다. 더구나 시부모에 대한 공경을 부덕의 으뜸으로 삼아 온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성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받드는 현숙한 아내의 도리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키우는

29) 김기창, “유관순 전기문(집)의 분석과 새로운 전기문 구상”,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현모양처의 상이 제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한국의 대표적 여인상을 대변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신사임당(1504~1551)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서울 시택에 들렀다가 곧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가 친정살이로 48세에 생애를 마쳤다. 신사임당은 비록 유교 사회에서 살았지만 일방적으로 남성에 순종만 하고 위축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이나 친정집에서 머물러 살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흔히 유교사회라면 당연히 여자가 남편을 따라 시집으로 가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때 사임당은 친정 부모를 모시겠다고 친정에 눌러 앉았다. 또한 신사임당은 남편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하는 성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만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포도, 풀벌레, 꽃과 새, 물고기와 대나무, 매화 등의 그림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명성이 높았다. 또 어떤 사람의 집에 신사임당의 풀벌레 그림이 한폭 있었는데 여름에 마당 가운데로 내다가 벌을 쫓자니 닭이 와서 조아 종이 가 뚫어질 뻔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진다. 신사임당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여인상의 제시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재능 있는 한 여인으로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진실성의 입장에서 참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시집살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았던 그녀를 부모에게 효성스런 며느리 한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로 제시하는 입장에서보다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홍일점으로 피어난 여류 문인으로, 재능 있는 한 여인으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진실성의 입장에서 참된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집살이란 그 당시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 김만덕

기존에 교과서 전기문에 수록된 여성 인물 즉, 인수대비, 문정왕후, 장희빈, 혜경궁 홍씨, 명성황후 등등은 왕실의 여인이고,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 등은 양반이거나 양반 계급과 관련이 있는 여인으로서 이들과는 달리 김만덕은 기녀로서, 사업가로서 200년 전 조선시대의 여인이 겪는 삶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자 한 여인이다. 김만덕은 천부적인 사업수완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거상이 되었고, 18세기말 제주도가 최악의 흉년을 부딪혔을 때 자신의 전 재산

을 바쳐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였다.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평민 신분으로, 때로는 기녀라는 말을 들으며 조선 시대 왕족이나 양반 남성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한 여성으로 김만덕에 관한 전기문을 교과서에 실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육지로 장사를 다니던 부친 김응열(金應悅)이 풍랑으로 사망했을 때 만덕의 나이 불과 10여세였다. 과선과 더불어 어린 시절의 행복도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 이때의 충격으로 몸져누웠던 어머니 고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친척집에서 일을 돌보아주며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그나마 친척집도 가세가 기울자 김만덕(1739~1812)은 어느 노기(老妓)의 집으로 보내졌다. 노기는 만덕이 노래와 춤, 거문고에도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관가로 보냈다. 만덕은 나이가 들면서 양가(良家) 출신인 자신이 천한 신분의 기생이 되어 있는 현실에 불만을 느꼈다. 그녀는 양녀(良女)로 환원되기 위해 관가에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만덕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목사 신광익(申光翼)을 찾아가 양녀 환원을 호소했고, 스무 살 무렵, 드디어 기녀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주위에서는 양녀로 환원된 그녀가 곧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만덕은 한때 기생이었던 과거를 지닌 채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살던 영·정조 시대는 변화의 시대였다. 이양법(移秧法:모내기법)을 비롯한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업생산력을 크게 증대시켰고, 이는 더불어 상공업을 발달시켰다.

만덕은 유통망이 상업발전의 골간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인식했다. 그녀가 살던 18세기 중엽 내륙에서는 각지에서 5일장인 장시(場市)가 섰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浦口)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계되면서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편제되어갔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상품을 유통시켰다.

만덕은 제주의 포구가 지닌 이런 가치에 주목해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렸다. 객주는 여관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 역할도 했다.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의 객주는 곧 번성했다. 그녀는 객주를 중심으로 기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녹용과 굴 등은 육지에 팔아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녀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지했고 그 자신의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이룩한 빛나

는 성취였다.

여성의 모든 재능이 억압받던 조선에서 그녀의 이런 성공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그녀의 생활은 검소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활 철학이었다.

그녀가 성공신화를 구가하던 정조 18년(1794) 무렵 제주는 거둬 태풍의 피해를 보게 된다. 전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는 ‘8월 27일과 28일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무끼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만약 2만여 섬의 쌀을 배로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는 장계를 올렸다. 1만 섬만 보내자는 대신들의 건의를 일축하고 정조는 2만 섬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정조 19년 윤 2월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선단 중 다섯 척이 침몰하면서, 보릿고개가 다가오는 제주에는 아사(餓死)의 긴 그림자가 드리었다.

이 소식에 접한 만덕은 자신의 전재산을 회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했다. 이렇게 사온 곡물이 모두 500여 석, 만덕은 이중 1/10을 친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모두 진흙미로 내놓았다.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은 만덕의 이 기부에 크게 놀랐다. 당시 제주도인 중에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이 300석,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석을 낸 것이 고액기부의 전부였다.

정조는 고한록을 특별히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했다가 군수(郡守)로 승진시키기로 하고, 홍삼필과 양성범을 순장(巡將)으로 승진시켰다. 이때 정조가 ‘이들이 1백 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고 말한 것은 이들의 기부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다.

이때가 정조 19년 5월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까지 만덕의 선행은 조정에 보고되지 않았다. 『정조실록』에 만덕의 선행이 기록된 때는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 11월 25일이었다. 양반도 아닌 일개 양인(良人) 여성의 이런 선행에 큰 감명을 받은 정조는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만덕의 소원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남성 같으면 벼슬을 주었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소원을 물어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만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원을 낸다.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 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 여인들의 출륙(出陸)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그녀의 소원은 정조에 의해 쾌히 받아들여졌다. 정조는 말을 하사하고, 각 군현과 역(驛)에 편의 제공을 명했다. 정조 20년 상경한 만덕에게 국왕은 내의원(內醫院) 의녀반수(醫女班首)의 벼슬을 내렸고,

그녀는 이 자격으로 정조와 왕비 효의왕후 김씨를 배알했다. 이때 정조는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 백 여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한 일이다'라면서 상을 내렸다. 만덕은 이듬해 봄 금강산에 들어가 1만2천봉의 장관을 감상했다.

그녀는 귀향 15년만인 순조 12년(1812년) 10월 7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제주 성안이 한 눈에 보이는 '가운이마루' 길가에 안장하였다. 그녀 사후 약 20여년 후인 헌종 6년(1840년) 대정현에 유배 온 김정희는 만덕의 진흙 행장에 크게 감동해 그의 양손(養孫) 김종주에게 편액을 써주어 의기를 기리기도 했다.』

바. 김점동

김점동(金點童 1879~1910, 일명 박에스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양의(洋醫)로 일본의 첫 여성 개업의 오기노보다 15년 뒤에 한국에서도 첫 여성 의사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첫 여성 의사였고, 첫 여성 과학자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점동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1900년 6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지금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귀국했다. 겨우 1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때까지 한국인으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명(無名)의 여성 과학자인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과학자 퀴리(Curie, Marie 1867.11.7-1934.7.4) 부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살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점동은 퀴리보다 10년 뒤인 1877년에 태어나서 67세를 살았던 퀴리보다 훨씬 젊은 33살 나이로 1910년에 퀴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1882년 조미(朝美)수호조약의 결과로 서양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886년(고종 23)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Scranton, M.F.)이 서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서울 중구(中區) 정동(貞洞)에 창설한 것이 이화(梨花)학당이었다.

김점동은 이 때쯤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스크랜턴 부인을 만났다. 스크랜턴과의 인연으로 그녀는 이화학당 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운 영어를 잘 하여, 여자 선교사이며 이화학당 선생님이던 몇몇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을 도와 통역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김점동은 1893년 박여선(1868-1899)과 결혼했다. 장소는 정동교회였고, 결혼 비용은 이화학당이 부담했다. 당시 이화학당은 이렇게 주선한 결혼이 성사될 경우 비용을 학교가 부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교회 결혼식으로도 전해진다. 이리하여 조선의 처녀 김점동은 아줌마 박에스터(朴愛施德 Esther Park)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95년 초 미국 여성선교사 로제타 홀(R. S. Hall)을 따라 미국에 건너갔고, 뉴욕주 리버티에서 영어를 공부한 다음, 9월부터 1년 동안 간호학교를 다니고, 1896년 10월 1일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지금 Johns Hopkins 의과대학 전신)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녀는 조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라틴어도 공부하고, 물리학과 수학 같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 5월 15일 이 대학을 졸업하여 조선인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된다.



V. 요약 및 결론

전기문은 실제의 훌륭한 인물에 대한 행적과 업적에 대해 쓴 글로,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인생 경험을 제공해 주어 인생을 이해하고, 즐겁고 가치 있게 사는 태도와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교육적 효과가 큰 글이다. 그러므로 전기문을 통하여 체험하는 감동과 교훈은 어린이들이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기문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과 경향을 알아보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여성 전기문을 분석·비교하였다. 즉, 교육과정별로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여성 전기문을 살펴보면서 변천 양상을 분석·비교하고, 앞으로 구현될 교육과정에 의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여성 전기문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전기문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를 거쳐 오면서 부분적인 변천은 있었으나 대폭적으로 변천된 부분은 없었다. 전기문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동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대다수가 업적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유관순’ 한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었다. 좀 더 많은 숫자의 여성을 실어야 한다. 인물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인물들은 신분이나 그 주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의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 전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수록되어야 한다.

첫째, 인물 선정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문장 기술면에서 생생한 움직임과 분명한 가치와 호소력, 흥미를 끝만한 낱말로 쓰되, 지나친 과장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학생의 입장에서 써어져야 한다.

넷째, 남녀 불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전기문일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여성 인물은 양반이상의 출신 신분이었고 현모양처나 독립 운동가뿐이었다.

이에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여성 인물 선정하여 교과서에 수록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년전 조선 땅에서 사업을 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조차 드문 시대에 왕에게 벼슬을 받고 왕비를 만난 평민 출신의 여성이면서 법과 금기를 깨고 섬 밖으로 나간 여성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업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만덕에 대한 여성 전기문의 수록도 고려해볼만 하다. 오늘날에는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소연,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세계 오페라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리마돈나 홍혜경, 신영옥, 조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와 정경화, 첼리스트 장한나와 정명화, 세계적인 무용수 강수진 등이 그 예이다.

여성의 권위가 상승하고 남녀평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과학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정치·경제 분야 등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여성 인물에 관한 전기문을 국어 교과서에 수록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한울사, 2008.
- 교육부, 《말하기·듣기 1-1, 1-2, 2-1, 4-1, 4-2, 5-1, 5-2, 6-1, 6-2, 읽기 1-1, 2-2, 3-1, 4-1, 4-2, 5-1, 5-2, 6-1,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_____, 《말하기·듣기 2-1, 3-1, 4-1, 읽기 1-1, 1-2, 2-2,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_____, 《말하기·듣기 2-2, 3-2, 읽기 2-2,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교육인적자원부, 《말들쓰 4-1, 읽기 4-1, 읽기 4-2, 말들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_____,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2007.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 구인환·김문수·오찬식, 《전기문과 희곡》, 예술문화사, 1993.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 김성환, 《한국사 천년을 만든 100인》, 오늘의 책, 1998.
- 김억환, 《신교육사회학 입문》, 박영사, 1987.
- 김찬흠,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2002.
- 노태조, 《국문전기연구》, 경훈출판사, 1992.
- 로버트화이트레드, 신헌재(편역), 《아동문학교육론》, 범우사, 1992.
- 문교부, 《국어 1-2》, 대한문교서적, 1950.
- _____, 《국어 1-2, 4-2, 5-2, 6-2》, 대한문교서적, 1952.
- _____, 《국어 2-1, 2-2, 3-2, 4-1, 4-2, 5-1, 5-2, 6-1, 6-2》, 대한문교서적, 1953.
- _____, 《국어 3-2, 5-2, 6-1, 6-2》, 대한문교서적, 1954.
- _____, 《국어 1-2, 3-2, 4-2, 5-2, 6-2》, 대한문교서적, 1955.
- _____, 《초등 국어 6-1》, 조선서적인쇄사, 1947.

- _____, 《초등 국어 5-1, 5-2, 6-2》, 조선서적인쇄사, 1948.
- _____, 《초등 국어 3-1》, 조선서적인쇄사, 1949.
- _____, 《초등 국어 4-2》, 조선서적인쇄사, 1950.
- _____, 《국어 4-2, 5-2, 6-2》, 대한문교서적, 1956.
- _____, 《국어 6-1》, 대한문교서적, 1957.
- _____, 《국어 6-2》, 대한문교서적, 1959.
- _____, 《국어 6-2》, 대한문교서적, 1961.
- _____, 《국어 1-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2.
- _____, 《국어 3-2,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4.
- _____, 《국어 3-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5.
- _____, 《국어 1-2, 1-2, 2-1, 3-1, 4-1, 5-1,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6.
- _____, 《국어 1-2, 2-1, 2-2,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8.
- _____, 《국어 1-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9.
- _____, 《국어 1-1, 1-2, 2-1, 2-2, 4-1, 4-2, 5-1,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0.
- _____, 《국어 2-1, 3-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1.
- _____, 《국어 1-1, 1-2, 2-1, 3-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
- _____, 《국어 1-1, 2-1, 4-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3.
- _____, 《국어 2-2,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4.
- _____, 《국어 2-1, 3-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6.
- _____, 《국어 3-2,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9.
- _____, 《국어 1-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0.
- _____, 《국어 3-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1.
- _____, 《국어 3-1, 3-2, 4-1, 4-2, 5-1, 5-2, 6-1,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 _____, 《국어 4-1,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 _____, 《국어 4-2,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5.
- _____,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6.
- _____, 《국어 4-1, 5-1,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7.

- _____, 《국어 3-1, 3-2, 4-1, 4-2, 5-1, 5-2, 6-1, 말하기·듣기 1-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8.
- _____, 《국어 5-2, 말하기·듣기 1-1, 1-2, 2-1, 2-2, 3-1, 3-2, 읽기 1-1, 1-2, 2-1, 2-2, 3-1, 3-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9.
- 양중해,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88.
- 윤치부,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이덕일,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정중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7.
- 제주도, 《구월의 여성 김만덕》, 1989.
- _____,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2. 논문 및 자료

- 강경호, “국어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강경인,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퇴계 이황 선생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 강태신, “전기문의 지도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2집, 1979.
- 고 순, “어린이용 한국 위인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3.
- 김광웅, “청소년이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4집, 1993.
- 김기홍, “극화 학습을 통한 전기문 지도 방안”, 《국어과교육》, 제9집, 1989.
- 김미애, “초등학교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인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권일천, “개화기 전기문학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

- 남상구, “초등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 선정의 타당성 분석”,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류준형, “국어 교재에 나타난 전기문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_____, “전기문의 본질에서 본 국어 교과서 전기문”, 《어문학교육》 제5집, 1983.
- _____, “국민학교 국어교재의 전기문에 관한 연구:연구영역-국어교육”, 《국어국문학》 1, 1976.
- 박부권, “교과서 편찬과정의 사회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박봉배, “개화기 국어과 교육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0.
- _____,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어과 교재 분석 연구”, 《청람어문학》 제5집, 1991.
- 서상현, “역대위인의 전기문 읽기를 통한 가치관 형성 탐색-충효인식을 중심으로”, 《전남교육》 35호, 1978.
- 신헌재, “문학교육 문학연구”, 《국어교육》, 1984.
- 심미옥, “학교 교육과 성별 불평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이병호, “국어과 교육 변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이상설, “고대 전기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이소운, “페미니즘 비평과 문학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순명, “전김문의 서술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역사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영애,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임채규, “전기문의 독서가 가치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 211, 1980.

- 정근영, “초등 국어 전기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정양순,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선정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경희, “노순 전기문학에 나타난 여성관”, 《중국어문학총 9》, 1995.
- 주종진, “초등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변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최혜림,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여성상에 관한 연구:페미니즘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한진일, “애국 계몽기 역사전기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3. 웹사이트

- 네이버 비디오, [지식채널 e] 헬렌 켈러, <http://video.naver.com/2008111619151776533>.
- 인터넷 별장 통신, 미국의 우상, 장애 극복 헬렌 켈러의 진실, <http://mozzin.tistory.com/823?srchid=BR1http%3A%2F%2Fmozzin.tistory.com%2F823>, 2008.
-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 한국방송 한국사 전, 조선의 여성 CEO 김만덕, <http://www.kbs.co.kr/1tv/sisa/hankuksa/>, KBS, 2007.
- 김만덕 기념 사업회, <http://manduk.org/event.php?sp=02>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Goh Gyeong-hun

Major in Primary Korea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Yoon Chi-bu

Men and women have their own values for their personal roles and existence, and are leading harmonious lives. Those from either side cannot be ignored, but women are placed in a passive position under a male-dominated patriarchal social system in most cases since its history has continued.

In the past, Korean women were also forced to live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namely women's sacrifice and obedience, and they had to marry their husbands through arrangement dates by their families without independently determining even their marriage. As time passed, education became common, and cultural, soci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ccelerated. As a result, women have gradually become aware of themselves or the social recognition of women has grown. The

advancement of women throughout a society in the legal circles, the administrative circles, the political circles, the police circles, the military circles, and the educational circles is being further promoted, and also in the fields of sports, culture, and art, the power of Korean women has been fully unfolded; thus, women are undertaking impressive activities at all social levels, and they are fully faithful to their roles in the important positions of societ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have increased as such, but the text is inattentive to dealing with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a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aterial for students. Thus, education repeats being at a standstill as if going round without changes. When children are asked to select representative Korean figures, mostly they bring up male figures. This is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figures in the textbook are men although there are lots of outstanding female figures no less great than male figures when going back to the past.

When looking into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textbook by the term of each curriculum, the number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hoices is small, and the number of Korean female figures from among female figures appearing in biographical literature is smaller than that of foreign female figures. In addition, the area which is covered in the biographical literature is limited. Also, women are described as leading a life in a passive and supporting position rather than leading a life independent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felt the need for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by curriculum ranging from the anti-communist education period to the 7th curriculum period.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d characters in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from the anti-communist

educational period to the 7th curriculum period while looking into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by curriculum. Also, the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nging patter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and aimed to seek the directio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which will b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by the curriculum that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that compares and analyzes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rom the anti-communist educational period to the 7th curriculum period while looking into the contents and trends of biographical literature contained in the textbook through papers concerned with biographical literature that have been announced to da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partial change passing from the anti-communist educational period to the 7th curriculum period, but there was no part that has been largely changed.

Second, biographical literature is supposed to cause readers to develop critical views while at the same time feeling impressed with the personality or behavior of the characters; but most of such biographical literature was described as focusing on achievements.

Third, the number of female figures contained in biographical literature to date was a great deal smaller than that of male figures, and in fact, only one female figure, 'Yu Gwan-sun', was contained in the 7th curriculum.

Likewise,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up to now has failed to satisfy diverse desires of students. Because characters appearing in biographical literature can be a role model of life to students, it is imperative to explore

new figures in diverse fields.

Therefore, the contents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should be describ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selecting characters, female figures in new, diverse fields should be designated.

Second, concerning the description of sentences, there should not be a number of exaggerations although they may be written with words that deliver vivid movements, clear values, and appeal, and that attract curiosity.

Third, the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should be written regarding the position of students today.

Fourth, the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should exclude contents that infuse gender inequality.

Fifth, biographical literature for planting patriotism needs to select characters from among a variety of fields.

In these days in which the authority of women has risen and gender equality is valued, it would be necessary to keep up with the trend of our time by containing biographical literature of many more diverse female figures such as in the scientific field, the athletic field, the artistic field, and the political, economic fiel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Key words : authority of women,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lect characters,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direction of female biographical literature,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